朝鮮日報
夕刊
一日(日)
本紙朝刊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日本反對不拘코 何應欽氏北上！

蔣氏의密令밧고極秘裡에發程

自治分解에活動？

【南京一日發至急報聯合】軍政部長 何應欽氏는 一日午前二時 突然 津浦線特別列車로 極秘裡에 出發하야 北上하엿다 何應欽氏의 行先은 何處인지 全然不明하나 蔣介石氏의 密令을밧고 濟南에서 時勢를靜觀하면서 左右를 未決中인 山東省政府主席韓復榘氏를 訪問하고 그協議如何에依하야 暴風의 中心地北中에 進出할것으로보인다

【南京一日發電通】行政院駐平辦事長官으로 北中政局收拾의 任務를 負한 何應欽氏는 就任을不悅하고 잇던바 蔣介石氏의 懇望으로 드듸어 單身北中에 進出하기로 決定하고 三十日午後三時四十分 南京發津浦線으로 北平에向하엿다 何應欽氏는 蔣介石氏로부터 宋哲元氏等의 分解策과 北中問題解決策에對하야 重要訓令을 받은것으로보인다

(何應欽氏)

本의 方針을 끗까지 貫徹하기로 最後決定을한것이다

伊大使佛首相會見

【巴里三十日發聯合】巴里駐剳伊太利大使체루티氏는 三十日午前外務省에 라발首相을 訪問하고 長時間동안 重要會見을 遂하엿다 石油禁輸問題에 關聯한 英伊關係의 惡化에 라발首相의 斡旋을 求한것이 아닌가觀測된다

社說 崔松雪堂女史의 壯擧

남어지私財를全部提供

一

昨三十日 金泉高普의 開校落成式을 兼하야 同校主인 崔松雪堂女史의 銅像除幕式이 盛大히 擧行되엇다는것은 이미 昨紙에 報道한바다。그런데 崔松雪堂女史는 그 莊嚴한 記念式을 機會로 다시 私財 三萬餘圓을 投하야 새로 特設豫定인 特別教室 建築費에 供하기로 하얏다 한다。누구나 아는바와 가티 崔松雪堂은 私財三十二萬을 金泉高普에 投하야 財團法人을 完成하고 校舍를 새로 建設하고 開校를하야 今日의 盛隆을 보앗는데 이제 다시 그 私財의 最後物인 京城의 家屋、其他를 放賣하야 이 學校에 던진다는것은 名實 共히 全財産을 社會事業에 供한다 할것으로서 그壯擧에 敬意를 表하지 안흘수업다。同校記念式에 列席한 某日本內地人이 日本內地에도 如斯한 女史가 업다고 激讚한것은 決코 阿諛的言辭가 아님을 알겟다。이것으로써 생각하면 崔松雪堂의 存在는 單只 全朝鮮的일뿐아니라 全東洋的存在라 하야도 過讚이 아닐가한다。

二

金泉高普는 이제 三萬圓의 增財로써 다시 五學級을 增築하야 名實 共히 朝鮮에 有數한 中等學校가 되게되엇다。그러나 京城이나 其他에 잇는 메엔 私立高普에 比하면 아즉도 多少遜色이 잇는것은 不認한 事實이다。그러므로 金泉高普가 一層 發展하랴면 一段의 物質的 時間的 努力이 잇서야 할것이다。그런데 崔松雪堂女史는 이미 全財産을 아낌업시 던젓고 이미 八旬을 지낫다。다시 女史에게 무엇을 要求하거나 請할수는 업다。그야말로 崔松雪堂외 義志를 본바다 金泉高普를 一層 隆盛케할 第二、第三의 崔松雪堂이 나오지안흐면 안되겟다。그것은 金泉人에게 限할것이 아니라、그 어느곳을 莫論할것이다。이것은 崔松雪堂의事業 아니 朝鮮的事業을 永久히 빗나게하기위한 正當한 要求이다。

三

무릇 一學校의 存在가 그 地方 乃至 그民族의 榮枯에 重大한 關係를 가지고 잇는것은 이에 吾人의 喋喋을 不要하는바이다。日本內地의 大隈、福澤、新島、西鄕의 諸氏가 日本民族 乂는 該地方에 如何한 功績이 잇섯는가는 尺童走卒도 이미 知悉하는바어니와 故 南岡李昇薰氏의 建立한 定州五山學校가 今日 定州 乃至 朝鮮에 가진 存在는 實로 莫大하다 안흘수업다。今後 金泉高普가 發展하야 多數한 聽俊을 낫는다면 그는 어찌 오죽 金泉의 榮光일뿐이랴 全朝鮮의 幸福일것이다。崔松雪堂女史의 最後의 財産까지를 아끼지안은 美擧에 對하야 最上의 敬意를 表하고 아울러 第二、第三의 崔松雪堂이 輩出할것과 金泉高普의 健全한 隆興을 衆하야 朝鮮私學界에 重要한 地位를 占하기를 心祝하는바이다。

對米借欵獲得次 王正廷氏策動？

日米訪問目的判明

【上海三十日發電通】米國副大統領가너氏一行의 乘船프레시덴트 데파손號에 同乘하야 急遽赴日한 王正廷氏의 目的에 對해서는 자못 疑惑하고잇던바 俄然 同氏는 日本에의 航海途中에 가너副大統領에게 對하야 二億弗借款要請說이 傳하게되엇다 詳細는 아직 明白치안흐나

一、借欵總額 米貨二億弗

一、用途 幣制改革、鐵道敷設其他經濟的建設을 目的으로함

一、軍費에 流用치안흠

一、擔保 鐵道收入及 關稅收入으로써 充當.

等의 要點으로서 要請한것이다 米國側의 意向으로는 王氏는 다시 渡米하야 借款成立의 具體的工作에 奔走할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王氏는 右借款問題에對해서는 蔣介石氏로부터 자못廣汎한 權限을 바더고 廣田外相에게 對해서도 右借款問題를 非公式으로 交涉하야 諒解를 求할것으로 보인다

【上海三十日發電通】王正廷氏가 가너米副大統領에게 借款을 要請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日本大使館과 陸軍武官室에서는 左한 意向을 漏洩하얏다

王正廷氏가 米國側에 巨額의 借款을 要請했다는 報道는 中國 確實한側의 報道라고 傳하나 아직 確認된것이 아니므로 아모것도 말할수업다 그러나 事實이라면 國民政府의 方便과 王氏個人의 行動이라고하더라도 至極不信한일이다

英米兩國大使 北平市長에警告

◇……北中自治政權樹立計畫은 既得權에對한侵害라고

【保定三十日發聯合】米國大使존슨과 英國大使카드간氏는 三十日午前十時、同十一時 北平市長蕭德純氏를訪問하고 市長就任人事에 對한 答禮를 述하엿는데 英米兩大使는 北中自治運動의 實情에 對하야 相當히 深刻한 打診을한 模樣이다 米國側消息通에서는 自國의 既得權을 損하는것이라고 極히 干涉的警告를 한것이아닌가보고잇서서 자못 注目된다

廣田三原則의 貫徹에邁進 現三省首腦協議

【上海三十日發聯合】有吉大使는 三十日午前十時 大使館에 磯谷 佐藤陸海軍武官을 招致하고 約二時間이 長時間동안 協議를 行하엿다 右는 蔣介石氏와의 最後的會見을압두고 外務陸海側이 各各 本省의 回訓을 가지고 日本側의 具體的交涉方針에 對하야 協議한것으로 華北對策에 關해서는 廣田三原則에 基하야 日

澄宮殿下御成年式

【東京電話電通】御成人되옵신 皇弟澄宮崇仁親王殿下의 御成年式은 二日에行하옵시게되엇다 二日은 二十年에亘한 澄宮의 御稱號도 玆에 御廢止 새로賜하옵시는 御宮號로 親王家御創立、秩父、高松兩御兄宮殿下와함께 聖上陛下御輔佐의 御地位에 就하옵실터이다

紅軍華北肉迫 防共自治聲擡頭

【天津卅日發聯合】陝西省北部에 蟠居해잇던 紅軍第二十六軍劉志丹軍二萬은 最近 漸次 積極的으로 活動을 開始하고 그一部는 察哈爾、綏遠에、一部는 山西北部로부터 河南으로 侵하야 進擊中인데 발리잔戰法과 懷柔政策을 併行하고잇스므로 多年 軍閥의 苛斂誅求에 苦痛하는 農民은 紅軍에게 續續 投降하고잇서서 勢力增加와함께 北中赤化軍態는 日滿中三國赤化共同防衛의 急速한 實現이 必要라고 北中當局은 勿論 日本軍當局에서도 獨自의 立場에서 이對策確立에 切迫되게되엇다

世界逸史

伊에兩國紛爭

所謂 國際間의 危機라고 傳하던 一九三五年이 漸次 저물어감에따라 國際間에는 複雜多端을 보이게되어 저물어가는 이해를 더욱 紛忙으로 促進하는듯하다。過去一週日동안에 東西兩洋에 世界의 焦點이 되어잇는 二大問題는 如何히 進展되엇는가 一瞥해보자。一年을 두고 紛糾를 거듭해오는 伊에兩國紛爭은 一方으로는 戰爭이 繼續되는데他方으로는 不徹底하나마 所謂 對伊制裁를實行하고잇다。그中에서도 第一重大한 問題인 對伊石油制裁는다시 이紛爭에 큰 波紋을 이르키게 되엇스니 英佛等 聯盟諸國은 制裁의 效果를 참으로나타낼수잇는 石油輸出을 禁止하야 伊太利에 致命的打擊을 與하려고 決定한데 對하야 伊太利는 去十八日 팟시스트大評議會를 開한結果 聯盟이 石油制裁를 斷行할 境遇에는 聯盟을 脫退하고 伊英軍精銳를 動員하야 英艦隊爆沈을 期하고 乾坤一擲의 一大決戰에 進出하기로 決定하얏다 俄然 全世界를 振慄케하엿스니 이石油制裁 問題는 伊에 紛爭의 終結을 決定하고 國際空氣를 左右할 重大한 열쇠가 되엇다만큼 世界의 視聽이 이에 集中되고잇다。洋을 달리한 極東問題는如何히 되엇는가。驟發無常한

北中自治問題

는一時 宋韓商三氏의 軟化로 中止되엇스나 去二十四日에 突然 宣布한 殷汝耕一派의 冀東自治宣言을 契機로 다시 重大化하게되엇스니、戰區十八縣에 七縣을加한 二十五縣에 自治를 實行하게된結果 北中自治運動은 促進되어 다시 宋哲元一派의 河北、察哈爾、北平、天津의 二省二市의 自治制確定에까지 이르게되엇다。宋氏는 南京政府에 絶縁通電을 發하고 드되어 自治工作에 進出한 모양이나 國府態度는 强硬하야 中央軍을 北上시켜 實力으로 阻止할는지도 모르는 形勢라、이問題를 繞圍코 又復 日中兩國은 險惡化하야 언제 어떠한일이 생길지 모르는 形勢에 잇다。進展如何는 吾人으로서도 相當히 注目된다 이리한때 멀리 떠러진 南米부라질國에서는

共産黨大暴動

起하얏는데 二十五日에 暴動隊는 리오·그란데·도·노르테兩州에서 蜂起하야 一擧에 나탈市를 占據하고 隣接諸州에 그勢를 뻐처 國內는 內亂狀態로 化하엿다 이에 부라질 政府는 陸空兩軍을 派遣하야 鎭壓에 努力中이나 軍隊도 叛旗를 드는 形便으로 그形勢 자못 險惡한바 잇다。가까히 東京政界는 豫算問題를 中心으로 政局의 不安을 呈하고 잇던바 豫算問題의 最難關인 軍部豫算에 對해서는 政治的 折衝으로 軍部와 大藏省間에 妥協이 成立되어 드되어 三十日의 最終閣議로서

明年度豫算이成立

되어 政局은 安定되게 되엇다 이는 高橋藏相의 公債漸減 政策의 勝利로 財界는安定되엇고 樂觀하게되엇스나 二十二億七千二百萬圓이란事實上 初有의 大豫算을 세운裏面에는 六億幾千萬圓의 赤字公債가 또 發行되어 日本公債發行額은 百億을 突破하게될것이니 반드시 樂觀할材料라할수잇슬는지？

新條約如何에不關 條約量建艦에邁進

代艦建造와空軍擴張을鼓吹

米海軍長官年次報告

【華盛頓一日發聯合】海軍長官크로드·스완슨氏는 一日附로써 海軍年次報告書를 發表하야 스완슨長官은 米國海軍의 現勢와 建艦過程의 現狀을 報告하고 또 『條約海軍』確立의 必要를 强調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一、華府、倫敦兩海軍條約의 連한 情勢는 依然 確定되지 안코 將來 어떠한 新條約이 締結되더라도 如何한 性質의 條約에 落着될는지 一切 알수업다 그러나 海軍省의 方針에는 何等 變化가업다 兩海軍條約의 限度까지 建艦計畫을 遂行할 方針이다

一、建艦過程은 着着으로 進捗되어 建艦中이오 또는 豫算案의 通過를본 艦艇은 合計八十六隻二十八萬三千噸이며 또『條約量』七萬九百二十五噸 約五十隻의 艦艇을 建造할 餘力을 保有하엿다

一、또 代艦建造問題를 考慮하고 海軍力保持方法을 講究하는것은『條約海軍』을 維持하는데 絶對必要하므로 代艦建造를 急行치안흐면 最高度速能力經濟下에 條約海軍을 維持할수는업다

一、現行海軍條約이 滿期失效될에 當하야 一部主力艦은 艦齡에 達할것이다 新條約이 成立되지안는限 代艦建造를 考慮치안흐면안되다 右의 重點은 特務性能을 至急改善하고 速히 增加하는 方法을 講究하는것은 戰鬪艦艇의 性能을 發揮하기爲하야 絶對必要하다 現在의 特務艦艇은 大槪 老朽에 屬하고 特히 速力이 鈍하다 特務艦艇에 對해서도 戰鬪艦艇同樣 漸次 代艦建造計畫을 確立하야可及的速히 建造에 着手치안흐면안된다

一、海軍航空隊는 順調로 發展을 示하야 海上兵力의 發展에相應하야『行動綱目』을 擴大하야海軍所屬軍用機는 一千九百三十五年七月現在 九百四機建造注文了의것 百七十二臺에 達하엿고 또暫定案으로 一千九百四十年까지에 空軍一千九百十臺를 整備할것을 勸告한다

一、海軍兵力은 또增加할必要를 認定하나 全國民은 海軍力에 信賴하고 國防上安心하여도조타 (寫眞은 스완슨長官)

國防費十億弗增加

米海軍豫算委員長强調

【華盛頓卅日發電通】米國海軍豫算委員會委員長제임스·피·뜨카난氏는 卅日 軍事費增加의 必要를 强調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歐洲不安의 情勢는 米國國防을 最大限에까지 增加할것을 要求하고잇다 政府는 豫算均衡을 圖하려고 考究中이나 一方으로 國防强化의 必要를 感하고잇서서 事態는 國防費年額十億弗을 增加할것을 希望하고잇다

데비스米國軍縮 全權聲明書發表

【紐育三十日發聯合】米國全權데비스氏、國務次官필립스氏及作戰部長 스탠드레提督은 二十九日午後十二時 紐育發아키타니아로 倫敦에 向하엿다 出發에 압서 主席全權데비스氏는 特히聲明書를 發表하야 海軍縮少本會議에 臨할米國政府의 方針을 聲明하야가로되

海軍縮少本會議에서 日英米佛伊五個國代表가 處理치안흐면 안될 諸問題는 困難또는 重大한것은 더말할것업다 海軍制裁協定에 至하는 過程에 重大한 障碍가 橫在해잇는것은 不必多言으로 적어도 事情에 通曉한 識者는 이障碍를 輕視치안흘것이다 그러나 刻下의 情勢는 會議가 當面한 諸問題의 解決에 絶望하는것을 不許하나 米國全權團은 善隣의 精神으로서 會議地倫敦에 進出한다 全權團의 態度를 一言으로다하면 友義와 善意이다 米國政府를 爲始하야 關係各國政府는 建艦競爭을 廻避치안흐면 안될것은 代表團이 痛感하는바이다 代表團은 이協定達成에 關한 모든 眞摯한 努力協調를不惜하는바이다

軍縮兩全權伯林着

【伯林三十日發電通】軍縮全權永野修身大將永井松三大使、隨員一行은三十日午前當地에到着하엿다

北平自治委員會 一日宣言書發表

【北平三十日發聯合】北平自治委員會는 十二月一日附로써 宣言書를 發表하야 國民黨의 秕政、東北四省의 喪失、農村破産、綏政府의 失敗等으로서 이에 黨을 離脫코聯合하야自治를 實現할것을 主張하야 民衆은 當局에自治를 請願하라고 呼訴하게되어 形勢는 益益急迫하엿다 右宣言書는 이미 三十日夜 北平城內에 全部 散布되엇는데 右는 一日의 民衆請願大會를 열準備라고 보인다

出兵權은當然잇다 抗議에對한外省見解

【東京聯話電通】外務省에서는 豐臺事件及 北中問題에 關한 國民政府의 正式抗議에 對해서는 公電을 기다려 回答할 與否의 態度를 決定할터인데 大體 如左한 見解를 示하고잇다

一、豐臺事件 日本軍이 豐臺驛을 占據하엿다함과 如한것은 全혀 事實無根이다 同地方에 若干部隊를 派遣한 事實은잇스나 現在는 若干의 監視隊를 除하고 거의 全部 撤退하엿다 또假令 同方面에 出兵한다하드래도 日本은 義和團事件最終議定書에 依하야 出兵權을 가지고잇스므로 何等 抗議를 바들 性質의것이아니다

一、北中問題 自治運動이 少數不良分子와日本軍人의 結託에 基한것이다함은 北中의 眞事態를 認識치못한것이다 同運動은 國民黨의 秕政에 對한 民衆的不滿에 基한것으로서 日本軍人이 이에援助를與하고잇는것가튼 事實은업다 但北中은 滿洲國의 治安維持에 重大關係가 잇슴으로 北中事態에 應해서는日本政府로서 實力行使의 決意를가젓다

張群氏의懇望을 磯谷武官一蹴

【上海三十日發電通】張群氏는三十日午後五時 磯谷武官을 官邸에 訪問하고 一時間에 亘하야 會見하고 北中事態의 情勢에對하야 國民政府의 方針을 反覆說明하고 諒解를 求하엿는데 中國側의 方針은 依然 變著 行政院決定事項以外에 아모것도업고 또 反省하는 빗도보이지아니하므로 磯谷武官은 速히 誠意로서 實現하지안흐면 日本으로서는 中國에 對한 態度를 變更할수업다 現在와 如한 國民政府의 態度로는 北中은 益益紛糾를 더할뿐이다 라고하야 張氏의 要請을 一蹴하엿다 張氏는 三十日午後十一時三十分發列車로 南京에 歸任하야 上海의 有吉大使 磯谷武官과의 折衝結果를 報告할터이다

伊政府重大閣議

石油禁輸對抗次

燃料油自給策講究

【羅馬三十日發電通】伊太利政府閣議는 三十日午前十時부터 뭇솔리니首相司會下에 開會되엇는바 確聞하건대 뭇솔리니首相은 閣議開會劈頭에 前回의 閣議以來 最近에 至하기까지의 國際情勢에 關하야 詳細히 報告한바잇섯고 勿論 石油棉花의 對伊禁輸問題進展에 對해서도 諸情報에 基하야 詳說하고 特히 石油禁輸問題에 對해서는 石油는 伊太利에 對해서는 가장重要한 輸入品이다 그러데 聯盟이 最近 石油의 對伊輸出도 禁止하려는 形勢이므로 伊太利政府로서는 이問題에對해서는 特히 重大關心을 가지지안흘수업다 라고 力說하는同時에 石油禁輸에 對抗하기爲하야 燃料油의自給策을 研究中인 化學工業會社로부터 提出된 研究報告를 提示하야 各閣僚와 愼重檢討를進行하고 其他모든 萬一의 事態를 考慮하야 이에善處할諸方策

墺洪兩國 軍事協定成立

【維也納三十日發聯合】匈牙利首相겜베스將軍과 外相칸야氏의墺國訪問의結果 制裁案을 繞圍한 墺匈兩國의 立場에 關하야 完全한 意見一致를 보게되어兩國은 事實上 相互軍事援助協定關係에 들어갓다고 確聞된다 兩國間에 成立되엇다고 傳하는 諒解骨子는 如左하다

一、墺匈兩國間의 通商的並融的友好[illegible] 强化伊太利와의 友好[illegible]

一、墺匈兩國은 聯盟機構를 尊重하야 伊太利가 聯盟脫退를 敢行하는데잇서서도 이에 追隨치안코 聯盟機構內에 머물것

一、墺匈의 政治的獨立領土保全을 爲한 軍事的協力達成

八面錄

◇金泉高普의 崔松雪堂女史、開校記念式日에 私財 三萬圓을 다시 提供키로 決意。

◇三萬圓이라는것은 三十二萬圓을 내노코 남어지의 서울집、其他라고 한다。

◇그야말로 全財産을 同校에 提供。

◇어찌 單純한 義擧、感謝란 말로만 表現하랴。

◇朝鮮의 女流 事業家로서 松雪堂、白善行、王在德等 그數가 적지안커니와

◇이들의 본을 따서 더욱더 事業家가 나온다면 朝鮮의 將來는 明明、明明。

◇英伊서 各各 重大閣議。한바탕 해댈 決心인가。

日本公債總額 百億圓을突破！

六億八千萬圓新發로

【東京電話聯合】十一年度豫算編成에 對하야 大藏當局이 公債漸減方針을 貫徹한結果、一般會計의 公債發行은 前年度에 比하야 約七千萬圓減의 六億八千萬圓에 끄치게되엇스나 日本公債額은 十月末現在로 이미 九十五億五千八百萬圓에 達하고잇서서 今年度歲入補塡公債發行豫定과 今後決定할 特別會計追加豫算에 伴하는 公債發行額을 加할때에는 十一年度의 公債發行額은 百億圓을 突破하게되엇다

英國軍縮全權 호어、몬셀兩相

三十日正式發表

【倫敦三十日發聯合】英國政府는 十二月九日 開會의 海軍縮少本會議에 臨할 英國全權團을 人選中이던바 三十日 如左히 公式發表하엿다 日米兩國代表部는 最初 英國側의 豫想以上으로 强力한 陣容을 備하고잇는事實에 鑑하야 英國政府도 外相、海相을 全權으로하고 그알에 海軍、外務首腦를 세운 堂堂한 陣容이다

全權 外相호어
同 海相몬셀
顧問 軍令部長챗트필드提督
同 大藏次官핏서
同 外務參事官크레기
同 海軍中將제임스
顧問補佐 海軍省計畫部長 海軍大佐단카스

對伊制裁에 比島參加要請

【쥬네브三十日發電通】對伊太利制裁十八個國委員會의 專門家小委員會는 目下 對伊制裁發動에 關하야 여러가지로 研究中인데 三十日 바스코세로스議長에게 對하야 聯盟은 今回 새로 成立된比律賓聯邦에 對해서도 他의 非聯盟國에 對하는것과 同樣으로 聯盟의對伊制裁參加의 通告를 行할것이라는 旨를 要請해왓다 右는 聯盟側이 新國家인 比律賓聯邦의 成立을 正式으로 認定한 態度의 證左라고 注目된다

各産業勞働團體 NRA將來檢討

【華盛頓三十日發聯合】米國의産業復興調整官메리氏는 압서 違憲判決을 밧고 崩潰된 NRA組織의 將來를 如何히 할것인가에 對하야 來十二月九日 各産業代表者의 圓卓協會議를 召集하야 同問題를 討議시키려고 計畫中이엇던바 今日 同氏로부터 發表한바에 依하면 同會議에는 五十七의 産業團體及 勞働團體가 出席하기로 되엇다 勿論米國鐵鋼業의 中心인 鐵鋼協會는 同會議參加를 拒絶하엿다

日曜氣配

▲株式 對伊 制裁發動과 豫算成立에 軍需株鮎株의 騰勢는 悔蔑키難하야 金米金融의 樂觀豫想으로氣配高值含

大新 一〇三·三〇 鐘新 一五·三〇
東新 一一五·〇〇 日産 一二一·一〇

▲期米 硬軟雙方이 氣迷가기 쁜때이라고 新甫一月限은 一〇·二〇錢上韓發會가 唱道되고잇는데 渡米不足含蓄不無라 豫想에 漸次回復模樣 氣配小堅

米日爲替

賣二八弗七四仙 三仙低
買二八弗七二仙 二仙低

今日本紙四面

取引處各位께案內

來四日午前十時부터 午後五時까지 새에 新行舍를 隨時高覽하여주시옵기 玆以謹告하나이다

株式會社 朝鮮貯蓄銀行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獨房 스팀設備
醫學博士 朴昌薰

男子로태여난 우리들은

한번成功하야서돈과名譽와地位를 獲得하야서家庭을安樂하게하고父母에孝養、社會에公益을다하도록 하지안흐면 男子로서살價値가업다。男子는絶對로成功에의希望을 버려서는안된다 今般發見完成한新成功學講習錄을 일그면곳누구나부러워할만큼 성공할수잇는立身成功致富의妙策 秘訣과基礎學問을習得傳授식힌다 前途의希望에불타는靑少年이여 獨立開業하려는젊은이여。昇級進級을希望하는분、就職에迷惑하는분、事業經營에苦心하는분은 少年도靑年도壯年도只今곳東京神田區三崎町帝國實業學會로『朝鮮日報에서보앗다內容見本보내라』고葉書로申込하면無代進呈함

合理的이오興味가깁흔 習字熟達法

習字熟達은 第一必要條件이 되다 透寫式練習法에依하면 容易히 버릇을矯正식히며短時日에 日本文字、英字、數字等이 슬슬 흘륭하게씨워진다。只今곳『朝鮮日報紙上에서 보앗다 說明書를付送하여주시오』라고葉書로申込하면詳細한說明書를無代로送呈함 東京神田區三崎町 ペン習字研究會

아무리하여도 中學만큼은 안마치면안돼 事務의餘暇에

現代는知識의싸홈이다。무엇을하던지 中學程度의 學力이必要하다 中學校에못간분은速成中學講義錄으로獨習하라 會長은天下에 高名한巢鴨中學校長遠藤隆吉博士 教授法은 本會獨特한直感式알기쉽고자미나는講義로 學校에가는一개月의 費用과 一개年의 短時日로 中學全科를習得하게된다

詳細는只今곳(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 葉書로申込하면 見本付說明書無代送呈함 東京神田三崎町日大通 帝國中學會에

당신은 편지를 척척잘쓰심니가

近者好評의…便紙研究會에서는 新時代에 適應한新講義는 短時日에 便紙善手가되다。詳細는 只今곳『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 (東京神田區三崎町)『手紙研究會』에 葉書로 申込하면 說明書無代送呈함

★鐘路의歲暮色★

入營通知를밧고 "愛의巢"脫營騷動

貞操만빼앗고는脫走하는郞君을 追擊、拿捕、路上에喜悲劇

지난삼십일오후두시쯤되여 부내원정(元町)이정목백오십이번지압 큰길가에는 자동차를타고 쫏기여다라나는 젊은 일본내지인과 이를추격해가는 젊은조선안악네가『저놈좀 잡어주오!』하고 웨치는동시 이에호응하여 몰려드는 군중들로 한때혼잡을이룬 우수우면서도 눈물업시볼수업는 회비극한마당이 열렷섯다 이에등장한 안악네는 원정(元町)이정목백오십이번지 건축청부업자 림전창평(林田昌平)의집에 식모로 잇는 김권이(金權伊)(二十)요 그에게 쪼끼여 다려난사나이는 가튼집에서 목수노릇을하는 산전삼랑(山田三郞)(二〇)—以上全部假名—으로 김권이는 전라도 태생으로 곡성군립면매월리(谷城郡立面梅月里)에서 열일곱살되든해에 가튼동리에 사는차천쇠(車天釗)(二〇)라는 농사꾼과 머리를맛맷고 내외가되여서 금슬이 남부지안케 살어내려오든중 스물세살되든 재작년이월에는 양전하든 남편이 그고을 장거리에 여러번드나들면서 부터 마음이 급작스럽게변해지며 어떤술장사하는 여자와 정을 맺고그와떠나지 못할애정이 엄키자 마츰내 첩으로 떼드려다가 한집에서 롱서시키는 동안 정되는여자에게는 씨가매처첫스므로 강욕이나 시앗본것에 불평을품고나려오든 김권이는 그이상 한집에서눈꼴틀리는것을 안저볼수업다해서표연하나 그네집을 떠나서 서울로 막연히올라왓다.

그러나 일가부치도、아는사람도업는 서투른서울엔 자기를마저주는 사람이 잇슬리업슴으로 그는 이곳에 온든날로 원정우편소(元町郵便所)압헤잇든 어떤 일본내지인의집에 차저가서 자기의고단한 신세를말한후 거두어써주기를 애원한결과 마츰내 그집주인도 그를가엽게여여 식모로써주기로 햇든것이다.

그후 석달이지난 즉 오월어느날 김권이가 부처잇든집에는 샛파라케젊은 일본내지인목수한사람이 나타나서 [illegible]그래해보이는 그를보고 달콤한말로재삼 끄이는 바람에 시골에서 자라난 정순한몸을 가진 그인만큼 정조를 바치고 말엇다.

여기서 산전이는 그를다시달래여 자기가 봉공하고 잇는림전의집에서 식모되게해 주더니 거기가서 자기와 함께 정식내외가되여서 살자하고 달래이므로 이미그에게 몸을바친이상그의 동을좃지안흘수 업다해서 그의말대로 림전의집으로다시식모가되여들어가게되엿다.

이러틋 정식내외의 형식을가추워가지고 살어오는동안 김권이는 의례껏잇슬 임신을하고말게됨에 따라 하로이틀지나는동안에 몸은 자유로 기동할수업슬만치 묵어워지며 오직일생의 희망을 부치고 기꺼운(?)그날을 손꼽아 고대하고 나려오든중 면칠전에 산전이는 자기고향으로부터「징병이 되엿스니 입영(入營)을 하라」는 급전이온것을 숨기고 나려오다가 김권이를 어찌하든지 떼버리고야떠나게 되엿슴으로 그전날부터행장을 몰래 꾸려두엇다가 사십일에 이르러 드되여 탈주계획을 실현하다가 압서 적은바와가티 김권이에게 들려서 그런봉변을 한것이다.

김권이에게 붓잡힌 산전이는 마츰내 소관룡산서(龍山署)원정파출소에 끄을려가서 엄중한설유를밧고 입영하는관계로 특히 정상을 동정해서 그대로떠내보내고 김권이는지금그서에서 살어갈길을주선해주는중이다

"大賣出"의總進軍 膨湃·街頭歲暮色

鐘路一帶는商工協會가主催 歲暮商戰에"스타트"

이해도 벌서 섣달을 잡아서사정업시 총총히 저물려하나 포도(鋪道)를 차며 길가는사람들의 발길도 어쩐지 바뻐만보이드니 거리거리에는 일일부터 일제히 연말대매출(年末大賣出)의기빨이활발하게 휘날려서 흥겨워도두는 연말기분에는 한술기 애수조차흐른다 경성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에서도 종로입내의 소소상점일백칠십점을동원하야 총경비 륙천사백오십원을드러서 일일부터 경품부(景品附)대매출을 시작하야 패기만만 가두를 행진하는 선전기행렬(旗行列)의 주악소리에 마추어서 분주한 연말상전(商戰)의첫불을 거렷다 특히 근년에이르러는 각백화점에 눌린소매상들이 무슨방법으로든지 연결동맹하야 강적을대항해보겟다는 의기가사모처잇슴으로 종로상계는 례년보다 더표면만으로도 활기를보이고잇다

同胞村을襲擊

土兵行悖藉甚 拉去、暴行、强奪等

【咸興】 십오도구칠형제목리(十五道溝七兄弟木里)에 숨어잇든토병만군(滿軍)의일대 십여명은작이십구일 밤아홉시경에 동구여운작리(如雲昨里)동포촌에 나타나서 동리주민대표로 구장이리괴섭(李宸燮)이를 붓드러가고그집을 습격하엿스나 주인은 미피난하고 업슴으로 그집가족일곱명을 모조리 포박한후에무수란타하야 중상을 입힌후 소한마리와 식량의복등 다수를강탈하야갓다 팔도구사십리평(八道溝四十里坪)부근에 숨어잇는문명군(文明軍)의 단장상희국(常喜局) 일대다섯명은 작이십팔일밤 여덟시경 십삼도구상북두리 (十三道溝上北斗里)이주동포 림호규(林昊奎)의 주택을 습격하여주인이 업슴을보고 이것은 몇번이나 현금을내라고한 우리들의 명령에 대하여 한등성의가 업는 증거라고 격분하여 전긔림호규(林昊奎)의 대신그의 동생 충하(忠河)(二九)를 붓드러갓다그리고 이십칠일 전긔토병 상희국(常喜局)의 압잽이김홍순(金弘順)은 십삼도구서강성(十三道溝西崗城)정두해 (鄭斗海)방에 이르러 그의 몸갑잔액 오백원의 제공을 강요함으로정두해(鄭斗海)는 또다시 붓들려갈가 무서워서 이십팔일 간신히 돈삼백원을 제공하엿다고 한다

汽動車馬車衝突

삼십일오후여섯시 이십삼분에시외광장리(廣壯里)를 떠난동대문행(東大門行)기동차가 여섯시사십륙분에 향당리(香堂里)교차점을지나다가 시외서둑도리(西纛島里)오백륙십구번지 조동윤(趙東允)(二三)의마차와 충돌이 되엿는데 마차는부서지고 말과마차부는 각각경상을당하엿스나 기동차에는 별일이업섯다고한다

歸順士兵五萬餘

大討伐開始後長白縣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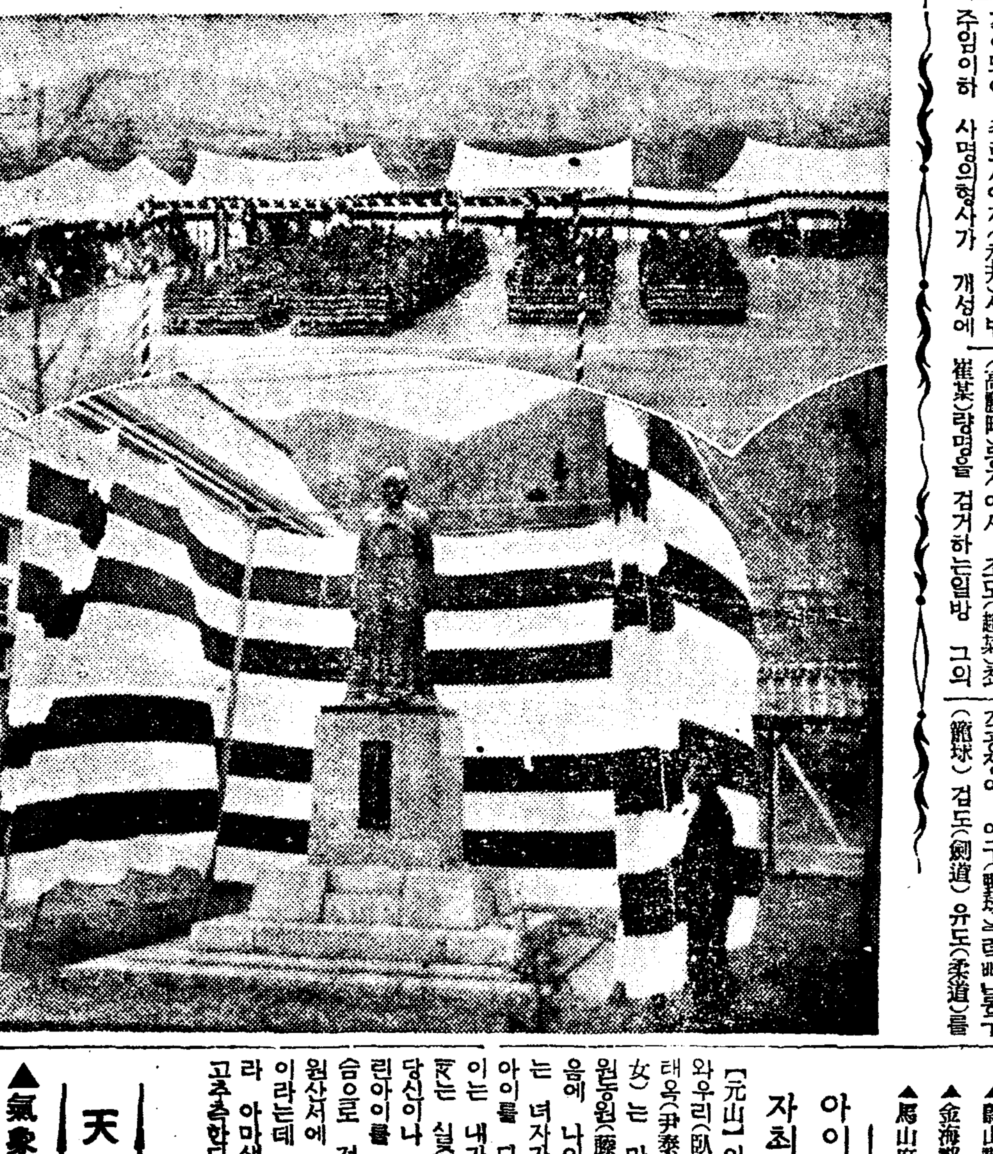
【咸興】 지난 십월상순부터 만주국군과 관동군이 련합하여전호로 토병(土兵)대 토벌을 개시하여 벽지에잇든 토병단들의 근거지를 모조리 습격하는일방 처처에서 토병단과 격전을 거듭하면서 그들의 귀순을 권유하고잇는바 이제 장백현공서(長白縣公署)에 도달한 경무국장부터의 보고에의하면 시월십일일까지 십일월 이십일일까지 섬내 칠현(七縣)에서 토병중에 귀순한수는 오백륙십삼명에 달한다고하는데 명년봄이 되면 다시 탈출하여 토병으로 회할염녀가 만흠으로 목하 국허 그들의 선무(宣撫)에 로력중이라고한다

最後의財産까지 又復三萬圓寄進

金泉高普特別校舍新築費로 崔松雪堂女史의至誠

우리문회의 압날에 영구히자랑할 일대 금자탑(金字塔)인 김천고보(金泉高普)는 기보와가티 삼십일에 성대한 기념식과아울러 이학교에 삼십이만원의 거재를던저서 그기초를 만세반석우에 세워노흔 최송설당(崔松雪堂) 여사의 동상 제막식을거행 하엿거니와 여사가 조선문회의 압날을 위하야 적성을다하야바친 그거대한공로에 사소하나마 답례한이동상의 건립과 아울러가방면의 열열한 성찬에 여사는 더욱감격하야 금번얼마남지아니한사재의 대부분인삼만원을 또다시던저서 그학교를현재의오학급에서 십학급으로 증급하기위하야 특별교실을 건축할의사를표시하엿다 신설될교실은 건평이백평우에이만륙천오백원의 경비를드려서설비완전을 목표로신교사를 건축하리라는데 인는힘로 여사가우리문화사상에 바치는 최후일적의심혈로서 여사가남긴 이를후의 사업기현고보에 금상첨화의 영광을더하는것이라고보겟다

(사진은 최송설당녀사)



개교 기렴식장(上)과 최송설당녀사 동상제막식 (작일 석간참조)

印刷機를押收後 連累三名을引致

鐘路署員이開城에出張活動 紙幣僞造事件擴大

【開城】 지난이십칠일 오후일곱시경에 박재삼(朴在三)이란자가 십원짜리 위조지폐로 고무신을 사다가 경성종로서 형사에게발각이되어 종로서영정(永井)사법주임이하 사명의형사가 개성에 출장하야 만월정(滿月町)고려정(高麗町)등지에서 조모(趙某)최모(崔某)량명을 검거하는일방 그의 지폐위조기일대와 부속품등을압수하얏다는데 또다시 지난 삼십일에 개성서형사대의 응원을 어더 김기용(金基瑢)지성녀(池性女) 김여중(金如重)등 세명을 검거하야다가 엄중취조중이라한다

虛無한鑛山抵當 百五十萬圓飛去夕陽風

東拓에서抵當잡엇든鐵鑛 鑛區稅不拂로取消

함남 리원철산(利原鐵山)에린접하야 서울 마생광업사무소(麻生鑛業事務所)주인 마생음파(麻生音波)씨가 소유하고 동양척식회사가 일백삼십여만원이나 대부하야 회수하지못하고 원리금을합하면 이백만원가까히나 되는 추정매장량 (推定埋藏量)약삼백만톤의 철산은 얼마전에돌연히 채권자인동양척식회사에는 아모말도 업시 리원철산에 팔엇스므로 동양척식회사에서는깜작 놀내여 조사하여 보앗든바 광구세(鑛區稅)미납으로 이미광구의 권리가 소멸되야 마생씨의 소유가되지못하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다시 출원인가되여 잇슴이 판명되엿다 이때문에동양척식회사에서는 큰손해를 보게 되엿스므로 그실태에 대하야 상당히 문제될모양이다

贓物을典執한者

일일오전 아홉시경에 시내소격동(昭格洞) 일백십칠번지 조병학(曺秉鶴) 전당포에 청동화로와 은수저를 전당잡히려는 소격동파출소에서 구호 김영인(金永仁)(二七)이를 종로서원이발견하고 조사한결과 그는 지난달초순경에 시내재동(齋洞)오십사번지의 류호 오은구(吳恩九)의집에 침입하야 금시계를 훔친것을 비롯하야 시내각처에서 유기와수저와 시계등 이십여건의 절도를한것이 들어낫는데그 피해가 약오백원이라한다

運動競技

高專럭비朝鮮豫選戰 普成專門軍優勝

六十五對零、法專을粉碎

全日本高專럭비大會 朝鮮豫選準決勝戰에서 斯界强敵水原高農을 十八對八로連勝한 普成專門과新進法專의 럭비決勝戰은 豫定과가티 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上野(主)山根、秋子(線)三氏審判아래 法專킥어프로開始되니 바 開戰二分에 普專TB朴商眞 勇敢突入하야 트라이하니 FW金敏洙의킥으로골인 5…0普專리-드 八分에 普專패날티킥을 金敏洙의킥으로 8…0 이로부터 宛然普專의 원사이드 게임으로 盧東鉉、李仁浩連續트라이하야 前半은 二十九對零으로 마치고 後半에드러가 亦是 法專軍 꼼짝못하고 普專軍에 몰리하야 結局六十五對零으로 普專軍優勝하니 明春時節에 朝鮮代表로 甲子園서열릴 全日本高專大會에出場케되엿다

普專65(36 29…0 0)法專0

【法專】 原佐石 村金合多中 田瀨田閑 (FW) 河佐平金中砂 (HB) 落嵩野朱島 (TB) 鷹橫古崔 (FB)

【普成專門】 (FW) 欽義山李重端洙命帝 (HB) 龍穀仁賀小宗敬 (TB) 尹崔劉朴尹裴金金卓 (FB) 瀛萬澤浩塔英 東商性仁碩運 金呂 ...

年產百萬圓以上 大金鑛이六個處

朝鮮으로大財閥의進出과 함께 大規模化하는鑛業界

조선내의 산금액(産金額)은 해마다 격증하여가는중으로 최근 일본내지의 큰자본이 조선으로 진출하야 대규모경영의 금광(金鑛)이 격증되여서 년산액 백만원을 돌파하는것이 금년에는사금(砂金)을합하야 여섯광산에달하며 그년산액이 오천만원으로 예상되여 일본내지보담 훨신만흔모양이다 더욱히 금년에새로히 년산백만원을 돌파하는광산은 평남성흥(成興)경북금정(金井)황해도수안(遂安)의세금산(金山)과 전북의 금제(金堤)금광의 네곳이라한다

工場勞動者에 쓰포츠奬勵

警務局의色다른腹案

지전(池田)경무국장은 지난이십팔일과 구일 이틀동안 경기도좌백(佐伯)경찰부장과 조(趙)보안과장의 인도로 조선제사 (朝鮮製絲) 조선직물(朝鮮織物)을비롯하야 경성근교의 각공장을시찰하엿는데 이는 공장로동자에게스포-쓰를 장려하고 또그위생시설의 완비를 아프로 적극적으로 독려할방침을 세우고 그실제운용에 대한 기초사항을 직접시찰하려는 의도로 공장로동자의스포-쓰장래는 가장조직운동에 동원되기쉬운 그들의사상선도와 생산능률의 증진과 건강증진이라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목표로하는것으로서 당국은 직접진두에 나서서 각공장에 야구(野球)、럭삐-롱구(籠球) 검도(劍道) 유도(柔道)를 장려하며 체육협회(體育協會)로하여금 연합회식 각공장사이에 대항경기를 주최시킨다는것이다

馬山讀書會事件 四名不起訴出監

【馬山】 경남마산경찰서 (慶南馬山警察署)에서 삼개월반동안 취조를 받든마산독서회 사건에관계자중 지난이십칠일에 네명이송국되엿다는것은 긔보한바어니와 남어지관계자는 송국당일에 석방되엿는데 송국된 네명도지난삼십일에 검사의 불기소로전부출감하엿다고한다 출감된 네명의 주소씨명은 다음과갓다

▲昌原郡鎭海邑泥洞里 金時泰(二〇)
▲蔚山郡下廂面南外里 李鍾太(二〇)
▲金海郡菉山面九朗里 金正泰(二〇)
▲馬山府富町二一 李泰根(二〇)

아이를맷긴후 자최숨긴怪女

【元山】 이십일일오후네시경부내와우리(臥牛里)일백오십삼번지윤태옥(尹泰玉)의처 조길녀(趙吉女)는 마츰원일이 잇서서 등원농원(藤原農園)부근을 지날지음에 나이사십세 가량되여보이는 녀자가 네살가량먹은 계집아이를 다리고 나타나서『이아이는 내가양녀로 길넛스나 이핫는 실증이나서 못기르겟스니 당신이나 길느라』고 말한후어린아이를 버리고 종적을감추엇슴으로 전과조길녀는 할수업시원산서에 계출하여 현재보호중이라는데 엄동이닥처 오는이때라 아마생활란의 소치가안닌가고추측한다고한다

天氣豫報

▲氣象槪況=低氣壓은 群山압바다와 鬱陵島南에 잇서서 東으로 進하고잇다 九州南海上에는 弱한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滿洲北部로부터 北朝鮮으로떠지고 日本南東海上으로부터 東北地方에도 高氣壓이 잇다 滿洲는雲 朝鮮及關西地方은 一般으로 降雨、北朝鮮에는降雪이 잇다 明日은日氣가조흘것

▲明日의日氣=今夕은北西風이불고 日氣는 漸漸조흘것이오 明日은 北西風이 조금强하고 日氣는조흘것이다

昨日 最高 九度二分
同 最低 一度六分
今日 溫度 四度八分

日本水上軍을 八個國서招聘

伯林大會歸途에

伯林올림픽大會를 九個月압둔이때에 日本水上軍이 明年올림픽大會를 마치고 歸途할時期를利用하야 오슬로(洪威)瑞西、마드리-드(西班牙) 도루-스(南佛) 주니스(同上) 모로코(亞弗利加) 뉴-지란드(濠洲)뿌라질(南米) 八個國이 招聘하겟다는것인데 今後에도招聘이增加될터인바 日本水上聯盟에서는 遠征日程의確定을기다려 應酬할수잇는招聘에對하야서는 應諾의通達이 잇슬터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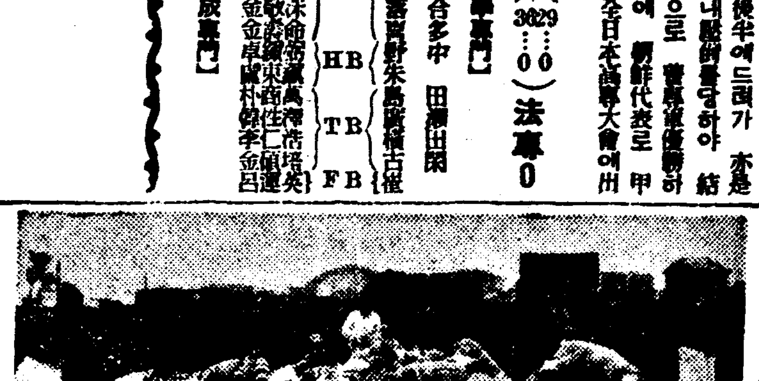
中央體育研究所 昇段昇級者發表

市內花洞에잇는 中央體育研究所에서는 지난三十日午後七時부터同體育館에서 定期昇段昇級者를査定한바 다음의 九十一名이라한다

▲三段補 金容星
▲二段・權重烈 李如星 尹甲重 朴炳
▲二段補 李宗浩 金達瓚 天
▲初段 李容彬 任祥鎬 元謙植 權寧述 任燦永 金晟集 崔禎 淵 李德興
▲初段補 李晶來 洪秘裕 辛皓 集 金明瓚 尹英植
▲一級 林正雄 高昌龍 李丙敦 李昌錫 李奎運 嚴翼鐘 洪鍾 亨 金斗鳳
▲二級 李鍾甲 朱寶云 李甲秀 金杞洙 林相權 高鍾中 林鍾 信 金慶植 崔敬達 朴在龍
▲三級 鄭得燮 朴公喆 李興鍾 崔甕生 金東憲 李廷徽 黃倜 模 兪載鳳 金祥浩 李庚成 洪 承業 柳春馨 金鍾弼 權寧通 朴容虎 任文彬 安浩相 金燕 星 金昌圭 尹相稷 柳基彦 李 東俊 李儀永
▲四級 金昌洙 趙成德 柳宜相 金成璽 朱文爾 金濟榮 李棟 成 金鍾敏 崔吉龍 湯宇景 金 允喆
▲五級、宋瑛儀 李勝雨 吳台煥 韓忠錫 韓淳爾 崔敏喆 金粲 鎬
▲六級、崔應三 梁興錫 趙鍾廈 黃德星 金大兪 兪彰龍 李春 寧 崔宗奎.申正五 趙泰熙 柳 泰衛 具任會 (右九十一名)

山岳俱樂部 發起準備會經過

스키나 山岳스포-츠의 普及發展을위하야 斯界에뜻잇는 이들로서 山岳俱樂部를 創立코저그 發起準備會를 三十日午後七時長谷川町業波茶房上層에서 열은바 十餘名이 參席하야 討議한結果 來十二月六日午後七時부터 朝鮮體育會館에서 發起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 多數來參하기를바란다고한다



◇寫眞은 普專對法專決勝戰

懸賞尋人廣告

本人의 長子柳承烈은 精神異常으로 平壤府上水里上新築場에서 治療中去十月二十日에 無斷出去 行方不明이기茲以 廣告하오니 內外諸賢은 此爲兩察하시고 本人에게 通寄하시면 金一百圓也와 保護하신 諸費用까지 厚呈하겟습니다
昭和十年十一月二十日 黃海道信川郡信川面良民里 柳仁馨 告白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성룡선생]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 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 만흔 사람의 관상을보고 大好評을밧는 관상계의 권위자입니다 前途方針에對하야 헤매는분、適業을擇하고大成功을바라는분、幸福한結婚을바라는분、夫婦間에서 고민하는분、株式、期米、鑛山事業으로 큰利益을보나 損害를당하나를 알라는분、其他、당신의 신수平生의길흉、訴訟의勝敗等 어떠한問題든지 聖龍先生은 明確하게觀判히 判斷하며 開業成功의길을 보여주는 實로 보람잇고 갑잇는 判斷입니다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り)
京城相學院
◇地方에게신분은생년월일과 현재사정을자세히 적으시고 료금을 부치시면 자세히 회답해드립니다 (사진이 잇스면 더욱명확함)

男女聽講生募集
詳細는二錢切手貼付返信用封筒을添付問議함事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原綿 中入綿 이불솜 蒲團綿 都賣
京城府觀水洞一四番地의二
漢城製綿株式會社
電話光一三八一番 振替京城一九〇三〇番
朝鮮絹織株式會社의絹織物도都賣합니다

特製 분백수 水晶
白粉꺼름・白粉얼눅・여드름땀띠・헐물음막고・化粧後에는高尙明朗・속살부터히게밝자한香味가뜬다
定價 五〇錢
松澤ホーサン石鹼本舖 東京・大阪

難治病者의福音
神이나佛이나起死回生케하는
靈術大家 觀相大家 靈山先生妙術
靈術界의 權威大家靈山先生께서 今番來京하시와 左記場所에서 一般患者에게施術하시는바이오며 百藥無効한 疾이라도 無效하게施術即席에 神效救出되오며 西洋을勿論하고不治의病으로되여잇는 現代難病其他무슨치病이던지施術不過幾回에 根治되여 特色先生은 觀術과觀相을 兼하시와 一生運命과 疾苦를明確히判定하심으로 此可謂一擧兩得의病治하고 幸運까지차게되오니 一見診斷하시고 男女老少를勿論코速히先生께로오서서 救出되시라
京城敦義洞六〇番地一(悅賓樓北側)
場所 靈山師事務所

아비럼콜 大衆盤 리갈레코-드 REGAL 擇曲自由 一枚八十錢

린네オチリン 림질
京城本町四ノ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鳴尾村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恩給 長期低利 他에比較無 特色 京城府長橋洞一六〇 鄭商會

訃告
靈溪吉善宙牧師以病患今月二十六日午前九時三十分別世故玆以訃告

地方論壇

新都의急先務 幼稚園의設立

新義州支局 一記者

우리新義州社會相을 一言한다면 敎育機關이라던지 諸般施設이 아무것도 보잘것이 업다 다른地方에 追隨하라면 千里長程에 아득할바이니 率先 最大急先務인 幼稚園設立問題를 드러말하고저한다 이問題는 只今에와서 새삼스러게 끄지버내는것도아니어서 數年前부터의 懸案으로 누구나 必要 잇서야 되리라는 말함이요 實現은 아즉 幾歲하니 何時에나 그의實現을 보여주라는가 新義人士여 盲目者가 아니어든 보라! 새近에 와서 우리의 어린이들을 日本內地人의 幼稚園에보내는 사람이 만히잇다 天眞爛漫한 어린이들에게 牛耳讀經과 소경丹靑구경도 분수가잇지 言語가 다르고 習慣이 다른、日本內地人保姆에게 保育을 밧는다면 그의收穫이 얼마나될것인가를 可히 想像할바가 아닌가? 昨年에 學務當局에서 共學制度를 不遠한 將來에 實施하겟다는 公表를하자 新界人士들의 猛烈한反對運動은 자못노파서 한참동안 輿論이 沸騰되엿든것은 아즉 一般의記憶에 새로운일이다 中等、專門校에서도 共學을反對하는 지금에 잇서서 幼稚園共學의아닌노 千不當萬不當한 일이아닌가 그러타고 보내서안된다는말은 決코아니다 우리의第二世일군들을 養成하는 保育機關을 우리의 손으로 한아라도 만하여 우리繼承의 손으로 保育을 밧게하잣음이다 有志諸氏여! 우리新都에 幼稚園한아가 업다는것은 地方的羞恥는 莫論하고 敎化事業에 너무나 無誠意하고 너무나 無責任한일이 아닌가 그러면 經濟上大難色이 有하냐하면 絶對로 그런것도아니다 物質、精神兩方面에 조금만 熱誠과 義務心이잇다면 幼稚園한아는 넉넉히 維持할수잇슬것이다 筆者는 이제다시금 一言하노니 有志諸氏의 熱烈한 새精神과 새計劃下에 새싹들을 培養할新田인 幼稚園이 하루바삐 實現되기를 懇切히 바라는바이다

汶山共同墓地 早速擴張絶叫

汶山支局 一記者

往年墓地規則이 發布되여 共同墓地制度가되엿다 따라서 우리汶山共同墓地도 第一區 狹少한곳에 設置되엿든바 規則에 依하면 先瑩의 墳墓가 잇는 林野所有者로 設置만 充分하다면 私設墓地나 家族墓地許可를 어들수가잇다고 본다 그러나 家族墓地許可를 어든者가 一面에 不過하고 一郡에서도 매우稀少하며 私設墓地를 設置한者도 一面에업다시피되다 그러면 新山에 墓地를 쓰는 先瑩의 墓가잇는 有墓地를 가진者ー合戶數의 約三分의二以上에 達하리라고 본다 누구나 納得하고 私設墓地許可를 엇기가 매우어려운모양인바 그 무엇으로因하야 어려운가 權力과金錢이 업는사람으로서는 許可手續을 생각을 두지도못한다 그런데 우리汶山의 共同墓地는 어느地方에지지안는問題이다 面積 第一區과其他를合하면 一萬以上의人口가使用하는 汶山共同墓地는 大正四年에設置된後 二十餘年間 死亡者每日平均二人以上으로서 埋葬場所에는 隙間이 없기는姑捨하고 사사람도 발붓칠곳이업서서 實際으로 二三層墳葬을하고 잇는現象이니 當局者任者들은 如何한 方策을가지고잇는지? 墓地擴張할것이 우리汶山에는 急先務이라한다

搜索方針에一轉機

大量檢擧에서早期檢擧로 彈壓에서敎化善導强化에

注目되는咸南道新方針

【咸興】지난 소화오년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각군에농조(農組)사건 도시에는 태로(太勞)공청(共靑)등 공산주의의비밀결사 조직이 탄로되여 금년까지 륙년간에 칠십이건에 일천륙백여명의 계속적 대량검거자를 내인 사상의근원지 함남도에서는 금후로는 종래의 일시대량검거의 수사방침을 조기검거(早期檢擧)로 입변하는동시에 비사조직의 혐의가 미약하게라도잇스면 한사람이고 두사람이고 즉시검거할계획이라고하며 그럼으로취조에도 극히 단시일을요하게될것임으로 불완전한 경찰서 류치장에 장기간 피의자를 류치하지 안흐리라고하며 종래의 탄압일로 주의보담도 극력 전향(轉向)정책을 취할터이며일변 교화단체(敎化團體)를 강화하며 사상선도에 주력할터이라고한다

朴海一氏美擧

【陰城】음성군 음성면 읍내리 박해일(朴海一)씨는 본시 자선가로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던중 얼마전에는 내리어잇는 사설학술강습회(私設學術講習會)에 시탄대로 일금백원을 자진기부하엿다

四十餘士兵出現

金品食糧을强奪

撫順縣下朱家堡子에서 移住同胞安危가念慮

【撫順】만주무순현제삼구고려영자(撫順縣第三區高麗營子)북방약오리지대인 주가보자(朱家堡子)부근에 토비룡림호(龍林虎)부하삼십오명이 지난 이십칠일부터 나타나 주민들의 식량(食糧)금품(金品)등을 강탈하는중인데 동지대에는 조선동포들도 거주하는이만큼 안위조차 알수업다고하며 목하 토벌대가 추격중이라고한다

開城서처음開催된 素人劇競演會 大盛況裡終幕

【開城】개성고려청년회에서는지난삼십일오후팔시부터 동회관대강당에서 조선의량신문지국후원하에 제일회전조선소인극경연대회를 개최하얏는데 동대회는 개성에서 처음인만큼 대인긔이어서 개회전부터 몰려드는관중은 천여명에달하야 공전의대성황을 일우고 동오후십일시경에 폐회하얏는데 당선된단체는 다음과갓다한다

一等 綠星社(도라가는사람)

二等 松都劇人會(아버지의바마)

統營兩大工事 竣工落成式擧行

【統營】경남통영읍은 수년래비약적 발전으로 각종사업의 규

江西의發展策으로 鎭江道改修急務 一般住民은猛活動中

【江西】평남강서(江西)는 지방송이나 부근에는 유명한 신구약수와 고읍(新舊藥水古邑)이잇서 여름철이 다치면 유람객이 무려수만명에 달하고 잇는대 한상 유람객에게 불편을 주는것은 진강도선(鎭江道線)의 교량(橋梁)이 협소하면보다 나저서 조고마한 장마에도 물이 다리를 넘어서 일반의 통행에 불편이 막대함에 따라・강서발전상에도 큰영향이잇스며 그리고 전긔 진강선(鎭江線)도로는 원래 구약수업을 거처가서 불편타하야 그럼으로 일부를 떼지하고 강서읍에서 구약수의중심을 통하게 진강선을 변경하면 강서읍의 발전은 물론 구약수의 유람객에도 만흔 편리를 주게될것이라하야 일반지민은 도당국에 도로변경 진정을 하는등 대대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고잇는데 당국의 처치여하가 주목된다고한다

北市場普通校 經營難에빠진 同情金을募集

【奉天】재래 조선총독부와 동아권여공사의 보조로 경영하든 봉천관내 구개교(九個校)는 경제에 합리화와 교육의 통제등을 목표로 작년시월에 학교조합(學校組合)을 구성한후 전긔구개교를 통제케하야래 조합으로서 만철(滿鐵)급 총독부에 요구하엿든 보조금이 여의히 되지 못하여 경영난에 헤매이든 나머지 최근 북시장 보통학교(北市場普通學校)에서는 저번의 여가를 리용하야 직원 전부가 총출동하여 일반유지의 동정금을 모집하고 잇다한다

四郡聯合雄辯大會 谷山支局後援

【谷山】곡산읍 긔독교청년면려회 주최와 본보 곡산지국후원으로 곡산(谷山)수안(遂安)신계(新溪)이천(伊川)등 사군(四郡)망라하야 제일회의 대웅변회를개최하기로한바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갓고 기타상세는 주최측에 문의하기를 바란다하며 연제의 범위는 긔독교리에 한한다고하는바매우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一、場所 谷山邑예수교禮拜堂內

一、日時 十二月五日午後八時부터

江界邑에火災 木工所一棟全燒

【江界】지난 이십구일 오전령시사십오분경 강계읍 동부동(江

府電問題를中心 兩論對立을難免?

自家發電과買電料金減下로 今回府會結果가注目

【平壤】평양부의 전긔문제는전일의 부회의원과 체신국장과의 회견으로인하여 송전회사에서의 직접배전이나 화력자가발전이 체신국으로서는 인가의 생각이 업다는것이 분명케 되엿스므로 남은 문제는 서전에서 배전료를 감하하도록 하는진로를 취하여야 될형상에 처해잇다 그런데 부회로서는 화력으로 인하는 자가발전에 향하여 맹진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앗다 하나 총독부당국에서 인가할의사가 업다는것이 분명해진오날에 그래도 긔정방침에따라 자가발전에 맹진할것인가? 또한 인가의의사가업슴이 분명한이상 서전에서의 배전료금의 감하를 하도록 방침을 변할가?는 부회의원으로는 중대문제이며 도의견도 상위가 업지안허 엇더한것으로 결정을 지을지를 각방면에서 주목중 금월초순에개회될 부회석상에서는 당연히 자가발전맹진파와 배전료감하파가 대립론전의 불곳이 날니어 질것으로 상상되여 부전문제는 점차 핵심(核心)을향하고잇다 반면에 시민만부민도 리해관계가 큰 부민의 꾸준한 싸홈으로 잇서든 권익인마큼 부전사수를 향하여 강경한 의향을 가지고 잇는이때이라 장차부전문제는 일대파란을 중첩할것으로 일반의주목은 갈수록 긴장하여간다고한다

幽靈會社밋기로한 大詐欺事件綻露

首謀者兩名이平壤署에被檢 被害人員이七十餘名

【平壤】평양부내 신양리(新陽里)김덕산(金德山)(ㅇ)과 동리원도선(元道善)(ㅇ)의 량명은 수일전 평양서에 검거되여 사긔죄로 취조를 밧고잇는데 그들은 자금삼백원을 내인후 다시 부내수옥리(水玉里) 김병건(金炳乾)에게서 자금일천여원을 출자케하고 로력출자자로 평남사(平南社)의 간판을 걸고외교원도업고 남조선지방에까지 십사명으로 서조선지방을망라한것하여 영업종목으로는 화양잡화고무만년필 넥타이 메리야스등 십여종 거기에다가 부내 각정리에 판매부 지점 제일창고 제이창고 제일공장 제이공장등 십여처를 두엇고 한개의 전화도업시 공장대표전화는 몃번 판매부대표전화는 몃번 이라는등 엉터리도엄는 선전문을 배부하여 대리점과 특약점을 모집하고 물품주문을 바든후에는 금액에 차지못하는 물품을 대금인환으로 발송하여 사긔를 하엿다는 것으로 아직 피해액은 분명치 안흐나 지금까지 발각된것만도 개천군중남면삼류리(价川郡中南面三柳里)김준걸(金俊傑)외 칠십륙명에 달하여 취조가 끗날때는 아직 만흔 시일을 요할모양이라한다

淸州郡內林野의 盜採品密賣取締

溫突生活에大恐慌期

【淸州】청주군림업계(淸州郡林業係)에서는 최근닥처오는 엄동을 압헤두고 낙엽혹은 풀들도채(盜採)하야 밤으로 밀매하는 자와그사정을 알면서도 이것을 싸게사는사람이 만다하야 종내에는 이런밀매자에 한하야처벌하는방침을 변경하야 금후부터는 이런범죄를 조장하는취인자(買者)에게도 용서업시 엄중처벌하기로되엿다는바 온돌에 불을안때고는 살수업는 가정중에서는이런취체로 인하야 금후부터신탄(薪炭)에 가격이올르리만티 곤난을 당하리라고 념려하고잇다

鎭南浦火災事件 畢竟放火로判明

保險金에탐을내여

【鎭南浦】화재보험금을 탐내여 자긔집에다 불을노와 이웃집열세집까지 전소케한 엉터리가잇다 지난 이십구일 새벽두시이십분경 진남포명협정(明峽町)일화당(日華堂)과자점에서 불이 나서 삽시간에 부근열세집이나 전소되여 약이만여원의 손해를보앗다함은 귀보한바어니와 (續報) 장소인 일화당이 상품과 가구를 합하여 오백여원가치의 물과하는 곳에 사천원의 화재보험이 잇다는것이 수상하여 진남포서에서 주인한정인(韓貞仁)을 엄중취조한결과 방화한것을 자백하엿다고한다 한정인은 지난팔월십사일 대판해상화재보험회사(大阪海上火災保險會社)에상품이천원 원료오백원영업도구 오백원 제조기구삼백원 각구집백원의 보험을 계약한후 점원(店員)부내 비석리 림도모(林道模)의차남 림근영(林根永)(ㅇ)을 식혀 성공만하면집도 지여주고공장사도식혀주마하고 지난이십일일 밤열시에 처하에 불을 노앗스나 즉시이웃사람들에게 발견되여 목적을 달치못하엿다가 이십구일은 주인한정인이가 가족들을 다리고 자긔처가에가서자면서 그와가를 범행을 하게한것이라는바 금번화재로 인하여 소자본으로 근근히 사러가는 십여호 식솔들은 옷한벌도 입지못하고 도로에 방황케되여 방금구제책을 강구중이라고하며 화재보험회사대리점취급자가 진남포 부회의원 모씨인데 상당한 지위에잇는 이로써 대리점의 적은리익만을 바래고 엉터리업는 보험계약을 하여 이런불상사를 일으키엿다고하여 일반의비난도 적지안타고한다

長淵郡各面聯合 道路品評會

【長淵】교통의안전을 주로목적한 장연군 각면대항도로품평회는 매삼년에 일차식 개최하여오든바 금년이 개최년에 해당함으로 각면에서는 그성적을 자못 우량케하기위하야 최선의로력을한후 지난이십륙、칠량일간 심사를한후 이십팔일 오후세시에 장연공립보통학교강당에서 성대한 표창식이 동회장 려구현(呂求鉉)씨 사회로 개최한후심사위원의 보고에의하야 금회우승의 월계관은 룡연면(龍淵面)으로 도라가는바 그순번은 다음과갓다한다

一等 龍淵面 二等 大救面 三等 牧甘面 四等 樂道面 五等 候南面 等外道路 一等 薪花面 二等 薄澤面

北市場普校創立 記念唱歌大會

【奉天】봉천북시장보통학교(北市場普通學校)에서는 오는십이월이일로 동교창립만이주년을 마지하게되바 그날을 축하하기위하여 동교서린(同校西隣)대관차원(大觀茶園)에서 제일회창가회(第一回唱歌會)를 개최하기로되엿다한다

地方人事

▲朴興植氏(和信社長)平壤支店開業人事次 本社平壤支局來訪
▲尹宇植氏(同平壤支店長)同上
▲金興恩氏(本報奉天支局長)身病으로 歸國療養中去二十七日歸任
▲金虎逸氏(東拓平壤支店龍岡駐在所主任)新任人事次本社自轄分局來訪

水麗 編物及文化刺繡講習

▲時日 十二月二日부터一週日間
▲場所 麗水青年會館
◇主催 麗水私鐵店
◇後援 朝鮮日報社麗水支局

一日 (日曜)

◇午後六時名作이야기『바보•이반』(二)(톨스토이原作朴泰遠譯) 朴泰遠
◇同六時二〇分 兒童日曜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講話 尹乙洙
◇同七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중모리(나)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어화靑春 (나)륙기타령 成錦花 鼓手池龍九
◇同八時 流行歌 一、닭개울님 古賀政男作曲 二、酒幕의하로밤…金駿泳作曲 三、流浪의哀愁…竹岡信幸作曲 四、兄弟는꿈…江口夜詩作曲 五、落花岩外千年夢…李基英作曲 六、외로운길손…古賀政男作曲 七、松島의달…金駿泳作曲 蔡奎燁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古談 申濟昌 창귀무당
◇同九時 合唱과獨唱 一、合唱 主의音聲讚揚함 청들너作曲 二、獨唱 (高在林) 聖誕頌讚三獻 門옥올녓다…니어렌스作曲 三、合唱 聖母마리아…드보르작作曲 四、獨唱 (高順愛) 聖誕자장가…모리스作曲 五、合唱 主의동산으로 롤손作曲 六、獨唱 (李順甲) 새예루살렘…아담作曲 七、合唱 별과노래 빌렉作曲 八、獨唱(李順甲) 나사렛…구노作曲 貞信合唱團 指揮金享俊 伴奏金元福

朝滿交換放送

◇同一〇時 滿洲로부터 (新京) 一、人事 (同朝鮮語譯)滿洲電信電話株式會社總裁 山內靜夫 二、祝辭 (同朝鮮語譯) 滿洲國交通部大臣 李紹庚
◇同一〇時一五分 朝鮮으로부터 (京城) 一、人事(同滿洲語譯) 朝鮮放送協會理事長 保坂久松 二、祝辭(同滿洲語譯) 朝鮮總督府遞信局長 井上淸
◇同一〇時三〇分 朝鮮民謠 (朝鮮으로부터(京城) 一、寧邊歌 二、노들江邊 三、密陽아랑리 伽倻琴 笑琴 池龍九 細笛 高載德 短簫 崔詩成
◇同一〇時四五分 滿洲로부터(新京)滿洲古典音樂 (以上)

二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三絃도도리 三、굿거리 四、打鈴 笑琴 金仁培 大笒 李忠善 細笛 姜鶴洙 杖鼓 金寬洙
◇同三時一五分 常識講座(一) 曆書이야기 鞠塚表
◇同六時 童話劇 白雪公主 二幕七場 原作 월해름•칼그림 脚色 鄭寅燮
(配役) 女王(公主의繼母)……金銖姬 白雪公主(임금님의딸)……韓銀淑 王子(이웃나라임금의아들)…… 侍女……金鋼玉 산양군……金銀星 거울……田山草 막뚝이(작은이에한사람)……鄭信永 작은이(一)……劉甲順 同(二)……朴賢淑 同(三)……康福均 同(四)……玉愛羅 同(五)……李英喜 同(六)……高公珠 두루미會 指揮 金相德 解說 金鋼鳴 效果 效果班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李常薰
◇同七時三〇分 運動界의回顧 (四) 氷上競技에對하야
◇同八時 라디오•드라마 高鳳梧 祭祀 一場 柳致眞 作 配役 祖父……申左悅 祖母……金福鎭 一英……李雄 再英……宋在魯 李氏……林秀錦 鶴君……孟晩植 孫婦甲……金德吉 孫婦乙……鄭淑子 할아범……朴商瑚 劇藝術研究會 演出 柳致眞 效果 效果班
◇同八時四五分 레코ー드音樂
◇同九時 (東) 管絃樂(第四回音樂콩쿠ー르入賞作品) 一、組曲『滿洲의印象』…松浦和雄作曲 (가)滿洲人거리의아츰 (나)가마와行列 (다)曠原과楊柳 (라)城內의祝日 新交響樂團 指揮 山田耕作 二、西風에날리는旗…服部正作曲 指揮 服部正

三日 (火曜)

◇午後〇時五分 (東大)合唱 (第九回合唱祭入選團體)(大阪) 一、……(가)神殿 크로이차作曲 (나)우현이…최코會로 바키아ー民謠 關西學院그리ー클럽 指揮 佐久間太郎 (東京) 二、……(가)노래祭 이노큼作曲 (나)저녁의노래… 크로이차ー作曲 (다)山懸聲 梁田貞作曲 (라)말는사람을보고피는노란…矢田部勁吉作曲 玉川學園混聲合唱團 指揮 岡本敏明 三、……(가)가을의자장가…휘ー리스作曲 (나)아름다운푸른도나우 요한슈트라우스作曲 EO클럽 指揮 中井和 伴奏 深川喜世 四、……(가)神殿…크로이차ー作曲 (나)小人의樂隊…세ー야ー作曲 (다)바다의노래…스테빈스作曲 東京리ー더ー타펠펠라인 指揮 秋山日出夫
◇同零時一五分 常識講座(二) 曆書이야기 (二) 鞠塚表
◇同六時 라디오世界一週修學旅行 番ー랜드 (一)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盧基男
◇同七時三〇分 講話 民謠와社會相 金合俊
◇同八時 望夫石歌外 一、望夫石歌 二、寡婦歌 三、노래가락 四、靑春歌 五、먹打鈴 唱 松岡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同八時三〇分 빠이올린獨奏 (레코ー드演奏) 一、빠이올린協奏曲 트短調 作品六十四ー멘델스존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몰토아파쇼나ー토 第二樂章 안단테 第三樂章 알레그렛토 논 트롭포ー 알레그로몰토삐빠ー체 크라이슬러 倫敦필하모닉管絃團 指揮 로날드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沈淸歌中林塘水로가는데 金柳鶯 鼓手 韓成俊

曆 十二月二日(月) 十一月(陰)戊子(大)七日 壬子•木•畢•除
●大雪八日(陰月十三日)
●冬至二十三日(陰月廿八日)

異次頓의死 【58】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이런때에 공목집 사람이왓다。

『거칠마로서방님께 아뢰오』

하고 거레를 하엿다。

『그 누구냐』

하고 거칠마로는 손에 술ㅅ잔을 든채로 바깟내다보앗다。거칠마로의 손이 흔들려 술ㅅ잔엣술이 넘처 자리에 떨어진다。

『공목바돌쇠께오서 거칠마로서방님 잠깐만 오십소사고 전갈이오』

하고 아뢰엇다。

『공목바돌쇠?』

하고 거칠마로는 술ㅅ잔을 다마시고 나서、

『공목바돌쇠이 이몸에게 할말이 잇거든 이몸의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라。누구더러 오너라 가거라 하는것이야 아니꼽게』

하고 혀를찬다。거칠마로가 제조부가 서불한인것을 등에 대는 것이엇다。

『그러치아니하오』

하고 곁에 잇던 사람이

『아까 보니 공목바돌쇠이 대궐로서 나오나봅데다。아마 서방님을 여쭙는것은 필시 상감마마 분부신듯싶소。가 보시오』

하고 분별한다。

『그러타면 몰라도』

하고 그제서야 거칠마로는、

『오 곳 옷을 갈아입고 가뵈옵니다고 엿조아라』

하고나서

『자 다들 가지말고 여긔서 실컨 술을 먹고 놀아。그 길다란 늙은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듯고 올테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마 무슨 조흔 일이 생기나보오』

하고 누가 말한다。

거칠아비는 혹시나 평양공주와의 혼인문제나 아닌가 하고 은근히 크게 밋으며 옷을 갈아입고 말을 달려 공목바돌쇠의 집으로 갓다。

거칠마로는 거만과 술이 한하야 마루ㅅ바닥이 울리게 걸어서 공목의 방으로 가서 늙은이와 벼슬 놉흔 이에 대한 예로 공목께 절하고는 곁에 잇는 압공에게는 절로 아니하엿다。압공따위는 눈에 잇지도아니한것이엇다。

『바돌쇠 긔운 안녕하시오?』

하고 거칠마로는 취한 소리로 인사를 하엿다。

『오 거칠마로。공부 잘하고、서불한 한아버님 강녕하신가』

하고 공목이 거칠마로의 붉은 얼굴을 본다。

『예』

하고 거칠마로는 감기라는 눈을 억지로 크게 뜨며、

『늙은이들은 다 돌아가섯스면 조켓소』

하고 방약무인하게 웃더니 알공을 힐끗 보며、

『알공한아손도 인제 그만하고 돌아가섯스면 조켓소』

하고 또 소리를내어서 웃는다。

『어、그 사람 술이 취햇군』

하고 알공이 외면하고 입맛을 다신다。

『남아의 긔운이 그래야지』

하고 공목은 알공에게 눈을 끔적하고、거칠마로를 향하야、

『그러치마는 늙은이를 보고 그러케 말하는 법이 잇나?』

하고 가볍게 책망한다。

거칠아비는 더 버릇업시 우스면서、

『오죽 사람들이 못낫서야 록신칠십이 되도록 산단말이오? 정말 사내가트면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그도 못하면 계집간사 편싸홈을 하다가 죽기로니 어떠케 못죽어서 륙십、칠십을 산단 말요。잘난 사내는 다 젊어서 죽고 못난 쭉정이들만이 요리 숨고 조리 피하고 구차하게 오래 사는것이어든。하하하하。어듸 피만타는 알공한아손 어떠시오? 수염이 저러케 파뿌리가 되도록 겨오 벼슬이 한아손。하하하하 그리고도 죽기는 실타고 대관절 살앗거든 산 보람을 해야지、그래 저 이찬돈이놈 하나 처치를 못하고어험 매는 늙은이들이 무슨 면목으로들 밥을 먹고들 산단말요。하하하하』

하고 거칠마로는 웃다말고 게금스러한 눈을 부릅뜬다。

洋服은뭣보다스타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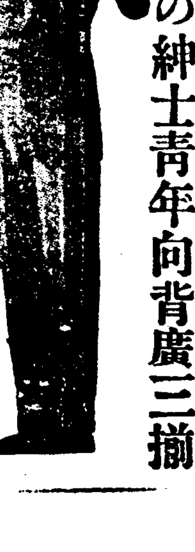
보라 文化의中心地인東京 所謂流行의先端 ... ▲住戶大阪名古屋等地의 朝鮮同胞各位의 愛顧를 바라는바이다 朝鮮部大擴張記念으로

景品附 大投賣

●三千点限十二月末日迄 但賣切次第締切●

綾、紺、黑本ラクダ兩前オーバー

註文品 (裏本朱子 柚ハ本絹入) ▲片前八一圓安
1 市價五十五圓ノ品只の……二五•五〇
2 市價四十圓ノ品只の……二二•九〇
3 市價三十五圓ノ品只の……一九•七五



鼠•茶•綾色並ニ紺ウーステッドの紳士青年向背廣三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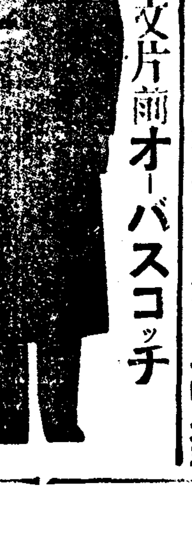
註文品 (裏本アルパカ柚本絹入)
4 市價四十五圓ノ品只の……二三•五〇
5 市價三十八圓ノ品只の……二〇•〇〇
6 市價三十圓ノ品只の……一五•九〇

一般實用向の背廣三揃紺、黑サージ

註文品 (裏舶來アルパカ柚本絹)
7 市價四十七圓ノ品只の……二四•九五
8 市價三十九圓ノ品只の……二〇•七五
9 市價三十圓ノ品只の……一七•六〇

高級既成品背廣三揃紺、黑サージ

▲註文品同様高級裁縫 ▲スコッチも同値▲
10 市價十五圓ノ品只の……八•五〇
11 市價十八圓ノ品只の……一〇•八〇
12 市價二十五圓ノ品只の……一三•五〇
13 市價二十八圓ノ品只の……一四•九五



裏茶•鼠•綾 高級註文片前オーバスコッチ

註文品 (裏舶來本朱子 柚本絹) ▲兩前八一圓高
14 市價六十圓ノ品只の……三二•〇〇
15 市價四十五圓ノ品只の……二三•五〇
16 市價三十五圓ノ品只の……一七•八〇

特價 高級既成兩前オーバ
本ラクダ紺•黑 スコッチ鼠•茶 裏本朱子柚本絹吊方共同値
1817 一五•〇〇 一四•五〇
2019 一三•〇〇 一二•〇〇
2221 一〇•〇〇 九•〇〇
2423 八•五〇 七•九五

滿洲•朝鮮服用本ラクダオーバー

註文品 (紺、黑 裏本朱子柚本絹)
25 市價五十圓ノ品只の……二九•五〇
26 市價四十圓ノ品只の……二三•〇〇
27 市價三十圓ノ品只の……一八•〇〇
28 市價二十七圓ノ品只の……一五•五〇

註文服同樣の朝鮮服用オーバ既成品大奉仕
但本ラクダ、裏는アルパカ或은本朱子柚는本絹入、選擇用등거오高級ラシヤ도同價이니注文時擇別하야下命하시라。

3229 只の……一四•五〇 只の……一〇•〇〇
3330 只の……一三•〇〇 只の……九•五〇
3431 只の……一一•〇〇 只の……六•五〇

御寸法書解圖通り尺八(鯨)

注意 但既成品이라도身寸數及全身長、肥滿、瘦瘠、職業、年齡等記入한後當店에一任하여주시면適當히調製發送함

抽籤景品
一等 コロムビア蓄音器ポタブル一臺式 五名
二等 十八金側腕時計一個式 十五名
三等 春秋用三揃洋服一着式 百五名
四等 スプリング一枚式 百卅五名
五等 西洋カミソリ一個式無渡進呈 五千名
抽籤券은一枚式贈呈함抽籤發表昭和十一年一月廿日頃
抽籤은東京各新聞社員들의立會下嚴正抽籤함
景品引換期限昭和十一年二月一日부터十日까지其後는無效

▲注文案內
먼저注文時는住所、氏名、注文書等을正書로알기쉽게明白히記載해주십시오送金은第一安全한振替東京三九三二五番
小爲替切手는一割增加一枚十錢以上짜리를願함
代引은다른形便에따르조건합니다。注文服은全額의半額以上前金으로
▲代引送料一圓五錢也 ▲先金注文送料當店負擔
全品絶對責任付不合迅速返金品替自由
投賣임으로事務繁雜하와カタログ請求斷謝함

東京堂滿鮮部
發送部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十六
工場 東京市神田區富山町
振替東京三九三二五番

【特輯】「커르는 헨리·동스」作「少女와 鸚鵡」……英國現代美術協會第五十五週年記念作品展覽會에 出品된

朝鮮文學의 危機에 對하야

南應孫

一、머릿말

現今 朝鮮人의文學은 險峻한 朝鮮에서 갈길을잃어 갈길을 찾지못하고 허덕어리고잇다 朝鮮文學은 果然 어듸로 가야할 것이며 어듸로 갈것인가

벌서 몃몃文人이 朝鮮文學의 나아갈길과 朝鮮文學의 將來性을 論한바잇스되 明確히朝鮮文學을 救濟할길을 具體的으로指示못하엿고 몃몃의作家가 그들의創作活動의 信條를 이약이하엿으되 다 各各 갈피를 못잡을 이데-의 所有者들이다 말할것업이 이것은

文壇의混亂 을 如實히告白하는것이니 이文壇의 混亂을 살릴길을 어듸서 찾어야 할까

「評論과創作의不振 그리고評論家의橫暴作家의 어리둥절한 創作方法 或은文藝理論과 創作活動의相異 旣成文人과 新進文人의 葛藤文藝雜誌의 沒落과 水準低落 『갈고』의 解散等等諸條件은 朝鮮文學의 危機를 形成한諸要素이다 勿論이要素가온대 第一重大한 原因은 朝鮮의 現實客觀的情勢의 맛길바 만켓다

우리는 우리의 文學을 論할때 眞實하고 堅實한 態度로서 黨派性을떠나 或은 卑俗한 政治主義的偏向을 떠나서 또는空虛한 文字로된槪念으로 갈팡질팡 貴重한紙面을 虛費코저생각말고 참다운 우리의文學發展을爲하야 몃줄이나마 무게잇고 튼튼한글을써낼것이다 이것이 文壇向上을圖謀하는 發展策이요 더나아가서는 世界文壇에가티 協調가 되고안으로는 自己自身의 完然한文壇的存在도 一般社會가 認定해주는것이다 말할것업시 自己自身이 文壇에

빗나기爲하야 努力치안을은 事實이로되 朝鮮의文壇現實은너무나 貧弱한文士를 濫造하고 또한素質도업고 研究도업시 文士되기를願하는者 헤아릴수업시 數多하다

우리는質的으로보다도 質的으로 向上하여야하겟다 나는이것을 切實히 느낀다 危機에直面한朝鮮文學의 나아갈길을 論함에잇서 이一篇의拙論이 朝鮮文學의나아갈길을조곰이라도 指示할수잇다면 幸으로 생각하겟다 朝鮮文壇의檢討와밋 新朝鮮文學建設이것이 내가草하려는 課題이다

二、朝鮮現實과 文壇狀態

朝鮮의文壇現實은 朝鮮現實을 떠나서存在할수업다 文壇의活躍衰滅은 어느時代를勿論하고 그가當하고잇는社會가 規定지어주는것이다 이것은 朝鮮의文學史에 나타난現象보다도 世界文學史에도 顯著히 나타나잇서 우리가 科學的으로 文學發達史를分折하야 그것을意識하고도 남음이 잇슨것이다

그럼으로

어느社會現實 과 그社會에서 生産되는藝術은 그社會의 一個反映이여서 어느社會現實과 文壇狀態는 同一한 事實을 內包하게된다할것이다

이제 簡略하나마 朝鮮이란一個社會를 史的으로 考察하야그에따르는 朝鮮文學史를 解明해보고 現今文壇狀態를 論해보기로하자

朝鮮의封建時代는 四時代로난호아 생각할수잇스되 一、李朝의 建設 二、武人政治三、朋黨政治 四、受難時代 라보겟다 그리고 또다시 李朝建設 以前 即 高麗統一 以前을 두時代로 난호아 생각할수잇되 三國時代(新羅 百濟 高句麗)와南北朝時代라 말하엿다 그러나 以上의時代는 朝鮮의 舊文學時代엿다고 일갈흘수잇고 新文學이 發達되기始作한지는 이제로 부터몃十年前에 不過하다 이러케不過몃十年前에 朝鮮에 新文學運動이이러나게되엿지만 그의發達史를보면 今日까지의

朝鮮의新文學 의 變遷過程은 짧은期限이엿지만 퍽으나 複雜多端한現象을 일우엇다 外國의古典文化의 輸入도적고 朝鮮自身의 遺産文化도적은 朝鮮의文化現實은 그發達이遲遲하고 따라서 方今까지 未熟하기짝이업다 이와가티 朝鮮의文化가 外國文化에比하야 幼稚한領域을 버서나지 못하고 잇스니만큼 朝鮮文壇乃至 朝鮮文學도 그發達이 늣고 또 幼稚하기짝이 업스니 只今으로붓허가朝鮮文學은 世界的으로水準을 높일때라고본다 몃몃作家가벌서 世界에紹介되엿도잇고몃몃 作家의作品이 世界의 傑作品이라하야 好評을밧은일도잇고하야차츰차츰 朝鮮文學도 世界的으로 억개를 맷이고 나아가는셈이다그야말오 간난애기와탈을 버스려는셈이다 우리는 偉大한作家를 待望하야 마지안는다 偉大한作家는全的으로 朝鮮文壇을 살리는것이라고 보와도過言이 아니겟다

朝鮮에 新文學이

發達되기始作 한 初創時期를 우리는 朝鮮新文學史上으로보아 浪漫主義文學時代 다음期를 民族主義文學時代 다음期를 自由主義文學時代라고 일카르고잇되 現今의朝鮮文壇은自由主義文學時代로서 말할수업는 混亂을 展開식히고 잇는것이나 所謂 朝鮮의文壇은 黨派性을 따저論한것이업지만 구태여論해본다면 民族主義文學派 리베랄리즘派 푸로派로 난호아생각할수잇으되 朝鮮新文學史上에 特記할만한것이 못될것이다

朝鮮에文藝誌로서는 멧개잇서서 若干의作家의 活躍議가 되어잇고 各新聞의學藝面이 잇스나 執筆者가 局限되여 文學硏究家의 登龍門을 完滿히열어주지못하고 其他雜誌에 一部의文藝欄이 提供되여잇지만 그것亦 文人들의 시원한活動을 뵈여주지못하니 더말할것업시 文人된자리를잡고잇는 사람만아니라 新進作家에게 큰打擊을 던저주고이는 現象이여서 朝鮮文學은 現今形便으로는 創時期的 活躍을演出치 못할것은 事實이니 이의具體的改革案이 잇기를 바라며 이것은 後日別稿로서論코저한다 上記한말은 朝鮮文壇을 全體로 이약이한것이니 그 文學의部分인 小說 戲曲 詩兒童文學等 一一히 따질必要도업는것으로 생각한다

더욱 朝鮮現實과 文壇狀態는 다음 文壇의 不振과 그原因에서 함께論하게되는바 잇겟다

三、文壇의 不振과 그原因

어느時代 어느社會를 勿論하고 그時代 그社會의 不振과發展이 잇는거와 마찬가지로 文壇에도亦是 이와똑가튼 現象이 이러난다 이것은 歷史的過程에 잇서서 必然的으로 일어나는事實이다

朝鮮文壇의 不振乃至 朝鮮文學이 危機直面된 原因은 那邊에 잇는가 나는우에서 槪念的으로 大綱이나마

危機를形成한 條件과 밋 그狀況을 이약이한바 잇지만이곳에 愚見이나마 條件的으로列擧해본다면

一、經濟的不利 社會全體가經濟的으로 不過한 情勢에 處해잇슴으로 말미암아 文人의 生活을 保障식혀주지못함으로 붓대를 꺽거버리는文人이만코 이에따르는 文藝誌의 數爻가적음으로 文壇을 助長해줄만한 機關이적은것이다 말할것업시 이經濟的條件이 全社會를 支配하고 잇스니만 큼文壇에 미티는 影響도 勿論크것이다

二、內在的主觀의 表現不自由 이것은 文人各自가 內在的主觀을 外在的客觀에 依하야 自由로운表現을 보지못한다는것이다

以上의 두條件은 朝鮮文學乃至 文壇의 不振의要素를 第一만이 갓고잇다고 봄것이다 우리가假令 愛蘭文學史를 아니면 佛蘭西文學史를 들처보드래도 어느 文學史에서라도 文壇의 不振時代와 危機時代를 차저볼수엇지만 現今의 朝鮮文壇恐慌과가튼 例는 차저보기 힘들다 할것이다

三、繼承文化가적은것 남의나라에比하야 遺傳文化가적고 따여라서·朝鮮에 新文學이 樹立되 歷史가 길지못한것도 間接的 으로 朝鮮文學의不振의 原因의한개를 形成하고 잇다고볼것이다

四、性質의 早老性에 依한文人의 腐敗、朝鮮의 客觀現實이 歷史的過程에 잇서서 必然的으로 朝鮮民族의 性質을 早熟식히고 早老케하엿다 볼것이지만 如何間朝鮮人은 早老하기 쉽다 朝鮮文壇에 잇서서 우리는 그 顯著한例를 볼수잇는것이니 十九年代의文人 梁柱東 朴英熙、金基鎭氏等은 只今무엇을 하고 잇는가(勿論生活條件도잇겟스나) 一二篇을 一年間에 우리文壇에 提供하는것으로서는 우리는 이분내들을 가르켜 確實히 早老한것으로안다 이뿐만아니라 朝鮮의 文壇情勢가 그러케해주는지도몰라도 評論두어편만 新聞紙上에 發表하면 벌서 評論家然하며 短篇二三篇만 發表하면 벌서文人然하고 詩몃篇만發表해도 벌서詩人然한다 이러케 우리는 早熟하기를조아하고 早老식히기를 조와한다 그러나 이影響은 文壇向上을阻止식히고 不振과危機를 招來한 한가지 重大한 原因이 아닐가 우리는 크게考慮하야

愼重히態度를 取하여야 할것이다 所謂文士濫造 이文壇의 大罪를犯치안토록 一般쩌날리스트들은 크게操心하여야 할것이다

五、外來思潮消化의不完全 朝鮮에는 偉大한 文藝理論家나 創作家가 낫하나지 못하야 外來思潮에 물듦기 쉬워서 外國그것을 곳自己것으로使用하되 完全히 消化를 식히지못하고 使用함으로 消化不良症 다시말하면 文壇的潮症을 일으키게되다 偉大한先輩가 업는것을 緣由로하야 獨創力과創作力이 微弱하야 쓰게됨으로 文壇의活潑을 期하며노코 남의것을 模倣만하야 기커녕 도리혀 不振을 招來하게되니 外來思潮消化의 不完全으로因한 文壇不振의原因도 直接間接으로 크다안할수업는것이다

六、作家의이데올로기와態度、朝鮮에思想이 確立된作家가 몃사람되느냐고 누구가몰으면 나는 그對答을躊躇안할수업는 即 作家의人生觀과 社會觀이 完全히 樹立된 作家가몃사람이나되는가 참으로 나는 疑心하지안을수업다 오날이전文藝理論을展開식히고는 來日은 길다른理論을 이약이하는수가 普通이요 따라서 文藝理論과 創作活動의 相異가튼點 아니면

完全한各自의 哲學을세우지못한者 此論彼論으로 남의 作品을 함부루批判하는 者等等을보는 朝鮮文壇의現象은 말할것도업시 文藝理論家아니면 作家란분들이 外國書籍이나 飜譯하야 이것저것 되는대로 적어 놋는關係가 아닐가? 作家들이 徹底히 이데올로기를 把握치못하고 文壇의亂雜하는것도 文壇不振의原因이되겟지만 所謂朝鮮의 旣成作家란분들이 얼마안되는 原稿料에 눈이어두워 文士다운 態度를 正確하게못갓고함부로 아무研究도 더싸치안코밤낫 形而上學的藝術觀으로 쪽이를만날어먹는 行爲가튼것은 우리로서는 크게憤慨치 안흘수업스며 直接으로 文壇不振乃至危機를 낫게한것이라보겟다 所謂文壇의 先進로서 可히직혀야할 節操를 못직히고잇스니 危機의 直面한 朝鮮文壇보다도 文士라는이름을 가진이런분내들이 더옥寒心하다

七、評論界의混亂、朝鮮의評論界는 一九三一年서부터

一九三三年에 일르러大混亂期를演出하야所謂批評無用論까지 一部文人間에 擡頭된事實이 잇지만 一九三五年에 일르러 다시 三三年度의 大混亂期를 再演하고 엇지안는가 생각된다 批判은 恒常 正當한批判의 性質을 떼고낫타나야 하겟는데도 不拘하고어떤때는 뚱딴지가리 文藝批評史한페이지를 겨우엇어읽고 評筆을 亂行하는 所謂新進評論家를 無視할수잇스니 自己自身이 評論의意義를 徹底히 究明치도 못하고 함부루로 남의作品에 손을댄다는 可笑로운일을 우리는 크게 痛嘆안할수업다 外國作家 한사람이나 두사람의 文藝思想을읽고는 곳그것을 直輸入하야 自己頭腦에蓄積하야두고 朝鮮의 모-든作品을 自稱銳利한붓끗으로 批判해야하느니 아니면容觀的으로 冷情한 立場에서 批判다운 批判을 해야하느니 等等

文句를羅列하 여 가면서 남의作品을 無慘이도 찢러죽이고마는例가 한두사람이 아니니 一九二四、五年度에 形式과內容問題를論爭의 對像으로 그야말노文字그대로 正當한 評論及至理論及批判의 意義를 喪失치안코 梁柱東、金基鎭、韓東逍諸氏가 筆鋒을휘둘으는그때가 只今에와서는 다시그리워진다 權威잇는評論家여 나아오라 그리하야 危機에빠진評論界를살리며 더나아가서는 文壇全體를 살여줄 생각은업는가

其他新聞學藝面의 執筆者가局限되여잇는것、文藝雜誌編輯者의 水準問題、新人의待遇問題、政治的偏頗으로의 自派擁護問題 諸條件이 朝鮮文學의危機를 形成한諸分子이며 文壇不振의 原因이라할것이다 우리는 大綱우에서 朝鮮文壇의 缺陷을 討究햇슴으로 大略어드런態度로 硏究하야 方策을 樹立하여야하겟는가에 對해서는 各當事者들에게 反省을바라며 責任을지게할수밧게업다。

遭難의藝術

무首相制裁國에 音樂演藝뽀이코트

【羅馬二十八日發聯合】伊太利新聞宣傳省은聯盟의 對伊太利制裁를 對抗하야 斷然演藝音樂뽀이코트를施行키로하고 二十八日演藝報復大綱을 發表하얏다

一、制裁參加國의 劇作家、音樂家、映畫製作者의 作品은 一切國內劇場公開席上에서 上演하지못하록 嚴禁할事

一、쉑스피어、쇼의作品佛蘭西劇作家의 作品及亡命美術家의作品은 不在其限

一、今後國內에 放送되는 音樂은 佛蘭西以外獨墺匈各國作品에限할事

一、伊太利作品에 限하야 輕音樂、단스音樂의 國外演奏를嚴重禁止할事

一、制裁國音樂家演劇者들은 伊太利國內에잇서 그出演을 嚴禁할事(寫眞은뽀-나니氏)

一寫眞說明一 上은「잘잇거라上海」의한場面 下는撮影을맛치고鄭基鐸君과阮玲玉孃의스냅

鄭基鐸監督의中報映畫 『잘잇거라上海』梗槪

鄭基鐸君은 일즉이 中國映畫界에서 異彩를 이루든 名監督인데 今番 自己의監督作品인『잘잇거라上海여』를 안고 故國으로돌아 왓다。때마츰 朝鮮의 映畫界도새싹이 트려는 때라 君의 作品을 勿論반가히마저 주리라고안다。同映畫의 主演俳優는 阮玲玉이다。阮玲玉은 中國의 唯一한人氣女優로 요前者 自殺하야 죽엇는데 그點으로서도 同映畫는 相當한 人氣를 끌지안할까한다。

四川省內 어느 村。 거긔서 小學校教員노릇을 하는 白露라는 美貌의 女性。 그村은 年年이 匪賊이 襲來하야 하로도편안할 날이 업서서 白露는 여러村民과함께 故鄕을 떠낫다。그의 伯母되는 未亡人이 上海서 相當히 富裕하게 살기때문으로 그를 차저서 白露는 上海로 가는배를탓다。그런데 마침 그배가 激浪을 만나서 顚覆될번하다가 乘客 船員의 一心合力으로 겨오 無事하게되야 上海까지 왓는데 그機會로 白露는 그배의 機關士 黃演秀를 알게되얏다。黃은 그伯母의집까지 그를다려다가 주면서 上海는 魔手가만흐니 身邊을 注意하라고 親切히 이르고 돌아가버리엇다。

그後 白露는 그伯母 王太太의집에서 留宿하고 지내오는데 그집에서 단골醫師로 吳光輝博士란者가 往來를 하고、잇섯다 이 吳博士는 王太太의외딸 마리와 結婚해가지고 그집全財産을 들어먹고자 王太太와 마리를꾀어서 이미 不具者의마리와 約婚까지 한者다。그러나 惡漢의吳博士는 白露의美貌를 보자 곳 陰險한 慾心이 動하얏다。그는 究竟 白露를 속이어서 自己病院으로다려와가지고는 貞操를 빼앗어서 버리고 말앗다。吳博士의魔手에 걸리어 몸을 더럽힌 白露는黃演秀의 仕托하든 말을 새삼스러이 記憶하게되나 이미 때는 느젓다。얼마뒤 黃演秀는 白露를 차저 왓건만은 白露는 그를 다시 對하기조차 괴로워서 面會를 拒絕하야 버리엇다。

王마리와 約婚한 吳博士에게는 또다시 아리스라는 愛妾이 잇섯스니 王마리와의約婚도 勿論 그財産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共同陰謀엿다。그러나 아리스는 吳博士에게 실증이 나서 다른情夫 李酒群과 손을 맛잡고 두사람의 結婚式 前날밤 高飛遠走하고 말앗다。

이러케 醜惡한 生活에 煉憫한 白露는 제홈로 生活을 開拓코자 王太太의집으로부터 뛰어 나왓스나 求職이 그다지 容易할리는 업다。할수업시 黃演秀를 차저보려고하얏스나 그는벌서 免職이되야 어대로 간지조차모르게 되얏다고 한다。마즈막길로 白露는 딴서로 가되얏다。그래서 每日 딴스홀에가서 밥버리를 하게되다。

그런데 白露의 배人속에는하로人밤 不義의 魔手가 다시씨를 심어노하서 그는멧달後딴서로 다니면서 한 사내아히를나케되얏다。그러다가다시 어느대 그아히가 病에 알는데 白露는 그아히를 집主人에게 맛기고홀에를 나가게되얏슬때 갑작이그아히의 病이 더치어 그집主人이 醫師를 請해 온다는밧자吳博士를 請해 왓다。吳博士는 그아히가 自己子息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아히는 絶望이니 곳 그父母를 부르라고 말한다。그急報를듯고 뛰어온 白露는 죽은아히와 吳博士의 아페 서서 運命의 惡戲를 咀呪하게 된다

白露는 魔의 上海를 떠난다 아프로 갈곳조차 漠然하건만는 何如든 上海만은 떠나지 아니치 못한다。

一밤의 悲歌一(詩)

……金德在……

무덥과가티 고요한 달밤는 기픈밤이
고요히 나래를 펴고 차저왓슬때
내氣肉은 한아름에 사로잡히고
잠을 일코 일어안진 머리는 인경인양 묵어웁니다。
두눈만이 反轉업시 검버입뿐
찌드른 창밖게선 黑暗의神들이 수근거리고
길혼 하늘에 새파란 별들만이 아룸거려
應尺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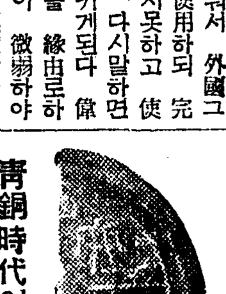
이름조차 모르는 늙은갓한송이
뷔인 麥酒人병 주둥이에 시드른머리를 걸친채
어설피도 밤의 靜寂을 지키고、
빈대피에 저진 낡은책은
칠면은 개다리소반우에 命운줄을 그립니다그려。
오-이밤에 甦氣樓나라 少女는 정비상을 푸른衣裳에싸고서
大理石깔린 北國星座를 돌며
춤을 추겟지오?
꼿츨 뿌리겟지오?
이밤엔 유난스레도 푸른하늘이
어머니의 乳房과도가티 그립습니다。

지금쯤 거처업는 방갓거리에는
屍帳의黎宴이 感覺업시 흐르고잇겟습니다。 나의 아름답든
薔薇의꿈은 구더서
屍體와가티 펴어래지고、
나의 한때에 불꼿가튼 혀는
새의허처럼 빠빠해집니다。

이때 으스름달이라도 낡은窓을 두다려준다면
가을날 우리들의浦口에서 悲慘히 黃昏에
싸혀 슬허진 갈매기를 조상하려
언듯 개(浦)ㅅ가로 나가겟습니다一

오-蒼白한 季節의 幻影이어
盛髮한 孔雀은 지금도 白金을 꿈꿀까요?

一三五·一〇·二五一 那美에게



青銅時代의古墳發見

【伯林發聯合郵信】最近 獨逸部의밧헤서 人類學史青銅時代의墓地가 農夫의손에發見되엿다 墓地에는 墳墓二十一이잇고 여긔에서 四十個의瓮이나왓는데 그中에는 少量의寶蔘이드러잇섯다

新刊紹介

▲호-무라인 十二月號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玉置合名會社發行 振替東京七二番 定價五錢

▲青年太陽 十二月號 東京市赤坂區表町三丁目 日本青年太陽社發行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二十錢

▲體驗小說 實踐 中西伊之助著 東京市京橋區木挽町奈良ビル實踐社發行 振替東京六四九五八番 定價一圓六十錢

▲朝鮮文壇 十二月號 京城府慶雲洞一二七、朝鮮文壇社發行振替京城二四五五八番 定價十五錢

▲民衆時報 第十號 大阪市東成區東小橋南之町三ノ八五 振替大阪五二八四〇番 定價十錢

▲主日學校申報 創刊十一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朝鮮主日學校聯合會發行 振替京城一四六三八番 定價四錢

▲新人間 十二月號 京城府慶雲洞八八 新人間社發行 振替京城一〇一一八番 定價十錢

▲金剛山 第三號 京城府樓下洞七七ノ四 金剛山社發行 定價十錢

▲批判 十二月號 京城府寬勳洞一四六 批判社發行 振替京城一三七八七番 定價二十錢

▲朝鮮興信報 第六一號 京城旭町二丁目一〇 朝鮮興信所發行 定價一年六圓 (月三回發行)

▲오-도모비누 十二月號 東京市京橋區京橋一ノ二 千代田證券ビル三階三五號 오-도모비누社發行 振替東京四七三五四番 定價五十錢 送料一錢五厘

一童話一 단풍닙과 귀뜨람이

宋鐵利

어떤 달밝은 가을밤, 꼿업는 려행의 길을 떠난 단풍닙하나가 외롭게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압파서 길엽헤 안자 쉬고 잇섯습니다。이때 길엽 갈밧속에서 『실실실 사르륵』하고 귀뜨람이의 처량한 노래人소리가 흘러나왓습니다。

『참말 처량도한 노래로구나』 단풍닙은 뜨거워오는 눈자위를 만적어리며 노래가 흘러나오는 쪽으로 향하야 귀를 기우렷습니다。

『실실실 사르륵』 달밤의 귀뜨람이 노래는 외롭고 쓸쓸한 류랑의 길을 떠난 단풍닙의 마음을 한업시 슯호게햇습니다。

『대체 누굴가?』 단풍닙은 처량한 노래의 임자가 보고십허서 지친다리를 질질 끌음면서 갈밧속으로 차저갓습니다。

『누구신지 처음뵙니다。』 단풍닙은 귀뜨람이에게 경례를 햇습니다。

『네-저도 역시 처음뵈옵니다 누구십니까?』

정신업시 노래만 부르고잇든 귀뜨람이는 이상한듯이 물엇습니다。

『저는 려행을 단이는 단풍닙이올시다。』

『그럿습니까? 전 밤이면 노래나 부르는 귀뜨람이올시다』

『참말 당신은 노래를 잘도부르십니다。나는 당신의 처량한 노래에 눈물을 흘렷습니다。당신의 노래소리는 은소방우에서 굴르는 금구슬소리갓습니다그려!』 단풍닙은 입에 침이마르도록 칭찬을 햇습니다。

『무어요 공연한 말씀이죵。거치른 소리로 그저 짓거릴뿐이지요。그런데 당신의 낯은 혈색이 조와서 참 엡버뵈입니다。나처럼 몰골이가 생김앗케 생긴놈이라군 이세상 어데잇겟습니까? 하-하-』

귀뜨람이는 단풍닙의 칭찬소리에 신이나서 『한번보라는듯이』 꿩꿩꿩 뛰여다니며 더-놉고 더-처량히 노래를 불럿습니다。

단풍닙은 눈을 가늘게 감고 정신업시 듯고잇섯습니다。좀 동동한 몸에다가 깜장옷을 곱게 입은 몸맵시、보기조케 버스러진 머리、『로이드』안경을쓴 눈모양、시원하게 생긴 길죽한 두다리 섬섬하게 뛰여다니는 두거름거리 놉고 낫고 가늘고 굵고 간들어지고 연연한 노랫소리 이모든점이 단풍닙의 마음을 취하게 햇든것입니다。단풍닙은 한참동안 잠잣코 듯고 잇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나서 이러케말햇습니다。

『여보세요 귀뜨람이군-나는당신의 노래소리가 목에서 나오는줄노만 알앗드니 인제보닛가 등에서 나옵니다그려?』

『아-이양반이 이때껏 내노래가 어대서 나오는지 몰나섯군 자-내가 선생님이 생도를끄리과(理科)를 가르키듯 나와가튼 버러지 음악가들의 이야기를한참 해 드릴게 드러보시요』 귀뜨람이는『에-헴 에헴』하고 큰기침을 두어번하고 이야기를시작하엿습니다。

『우리 버레나라 음악게에는여러가지 부문(部門)이잇지만그중에서 제일 일흠잇는 우리귀뜨람이과(科)에대한 이야기를 하겟습니다。우리 귀뜨람이과에는 음악가들이 가추가추잇습니다。첫재 목금(木琴)잘켜는『방울버레』도잇지요 만도린의 권위『구사히바리』도잇지요 처량한 노래의 소유자 나도한 목를지요、자-엇덧습닛가 자랑가지만 이 여러 음악가들이 제각기 악기를 들고 고요-한밤 그윽한숲속에서 처량한노래를 한가지 한가지순서밟아 연주하면 한번듯고는 거름을 멈추지안는 놈이 업스닛가요……』

〃여보 이양반 자랑은 그만하고 어데서 엇재서 그 고은소리가 나는지 가르켜주시요』

『네-실례햇습니다。우리〃귀뜨람이科나〃〃벳쟁이科〃의 악기는 등뒤 오른나래 안쪽의 펑펑한데、왼나래 겻쪽의 문질르는데、이문질르는데의 아래쪽에잇는 소리나는곳、이세부분(部分)으로 난호여잇습니다。퍽-간단하지요。내가한번 사람의집 등잔을 넘어 방안에들어가 숨어서〃바이오링〃이라고하는 악기켜는걸 보일이 잇는데、그〃바이오링〃의 활(弓)이 내오른나래의 뗑뗑한데와、줄(絃)이 내 왼쪽나래의 부비는데와、소리를 궁글게하는 동(胴)이 내나래의 소리나는데와 비슷합니다。그러나 우리버레나라 음악가들이 모다가 맨나래로 소리를 내는가하면 그러치안습니다。저-멧목이 가온것은 뒷다리와 나래를 서로비벼서 소리를내인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가을이되면 무에 그리 설워서 그러케슯흔 노래만 연주하십니까?』

『말을 마십시요 실상 우리버레나라의 사내들은 가엽기짝이업답니다。한번 세상에 태여난이상 사기를 짓처서 종족(種族)을 끈치안어야 하지안켓습닛가?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만키때문에 짝을 엇기가 여간힘든것이아니랍니다。그래서 제각기 제재주대로 노래를불너서 여자들을 부른답니다。어떤때는 한여자를 사이에두고 여러사내들이 목숨을 내놋코 싸호는 때가만합니다。그럼으로 우리버레나라와 음악가들중에는 여자가 한분도 업습니다。후-유』

귀뜨람이는 한숨을 길-게쉬고 묵묵히 잇다가 단풍닙을 향하야 이러케 물엇습니다。

『당신의낯은 어째서 그러케 샛빨앗습니까?』

『내낫말입니가?』 이야기 하지요。

단풍닙은 샛빨안낫을 발깍들고 숨을 한번 길게 드리쉬고 이야기를 끄내엿습니다。

『여름에는 온도도 놉고 햇볏도 강한고로 수분을 내뿜는 작용 직 발산작용(發散作用)이 왕성하지만 가을이되여날세가 치워지면 뿌리의 활동이 둔해감을따라 우리들의발산작용도 적게하지안으면 안됩니다。만일 여름과가티 발산작용을하게되면 수분이 부족해서 말너죽게됩니다。그럼으로 우리들이 빨강이로나혹은 노랑빗으로 변해서 얼마동안 미-미-하게 작용을게속하다가 영-영-떠러저버리게됩니다。우리의 빗이 변하게되는것은 우리몸속의 세포(細胞)안에서 출거리의 영양(營養)인、전분(澱粉)도、만들고 우리의 빗도 푸르게하는 엽록소(葉綠素)라고하는 푸른소(素)가 분해(分解)하야 황색소(黃色素)로 변해지면 우리들이 누르게되는것이니『아가시야』『닥은행나무』닙 가튼것이 그것이요 엽록소가 분해하야 황색소로 변하여짐과 동시에 세포안에 잇는 당유(糖類)라고하는것이 원인이되여 홍색소 직 빨강이로 변케되는것이니 분량이만코 적음을따라 혹은 등빗(橙)혹은 빨강이 등여러가지로 변하게되는것입니다。예를들면『감나무닙』『벗나무닙』『나가튼단풍나무닙』등이외다。참말우리들이 이러케 방랑생활을 하다가 맛츰 어느밧헤나 나무그루밋에 파뭇처서 거름이나 되면 다행이지만 불행이 사람의 집아궁이 신세를 지나 물속에서 썩어지게되면 그처럼 설고 분한일이 업답니다」단풍닙은 이야기를 맛치고 한참묵-묵히 안저잇다가 달그림자를 찻으며나가는 기러기우름소리를듯고

『아잇-납들은 부지런이 길을 가는데 난무얼하나 어서가야지-』하며 발온듯이 벌떡이러낫습니다。

『자-그러나안영히-』

『네-평안히 계십쇼』

단풍닙과 귀뜨람이는 인사를주고밧은뒤 서로 혜여젓습니다。

시름업는 가을밤은 점-점-더 깁허갓습니다。

いよ〳〵新年號
キングは
偉い事を
やります
實に驚くべき大計畫！ 雜誌界始まつて是丈の大計畫は且て有りません。實物を見たら、誰もアッと驚嘆の安さ、素晴らしさ
お待ち下さい
十二月四日發賣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 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登錄商標 登錄商標
京城 륙대
祖元界靴무고
京城中林洞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電話本局(2)三三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八一番
大陸고무
總販賣部 京城鍾路(裁判所前) 電話光化門長七六五 振替口座京城七三三番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市場越便) 電話本局(2)七五四番 振替口座京城三七七五番

十一月三十日부터大封切
폭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하림론막그파-단氏監督
苦鬪五十年
뿌래스콘포스타-氏主演 지다요한孃
摩天樓가聳立한市街에 火炎의包圍! 炭坑의爆發! 亡父의遺志를目標로多恨한五十年이 大統領의꿈안에서마칠때까지 어던多恨男兒의苦鬪史
폭스會社特作全發聲映畫
알푸랫드-와-카氏監督作品
華麗한人生
라울리-엔氏 에도매이오리-바孃 主演
大都映畫會社特作時代劇
中島寶三……監督
黃金飛脚
桂章太郎、三城輝子 主演
黃金町 優美館 電光二九六

十一月一日부터六日間
大衆映畫奉仕週間(但晝間만) 階下二十錢 階上十錢均一
(1)와-너내슈날社 全發聲映畫日本版
로이도베-콘監督 죠-이뿌라운主演
뿌라운野球大捷記 8
(2)와-너내슈날特作全發聲 (日本版)
로이델루-스監督 젠쓰카그니主演
拳鬪카그니- 7
(3)뉴-쓰數篇
夜間一日……五日까지
六日當夜 東京少女歌劇公演
野談同人會主催 朝鮮日報社後援
野談大會
大衆文化의第一線에서나날이자라고잇는野談이 大京城大舞臺에서처음으로웨치는바이니 野談이무엇인지를알고저하는이도 野談愛護家는勿論이 一機會를놋치서는크일이다 그야말로一宵千金이다
◇十一月三十日낫부터公開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밤七時十五分始映
FOX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猛獸映畫 魔獸다이가 全八卷
監督……구리이트·Y·에리옷트氏
主演……마리온밴스氏 권릿치몬트氏
FOX社超特作全發聲映畫
空中大活劇 大空의地獄 全八卷
監督……존부리스톤氏
主演……와니바스타氏 끈지다몬데니三氏
竹添町一丁目 電光三二六五 東洋劇場

大都映畫超特作無聲映畫
現代劇インナキ金鑛大當り 全七卷
監督……吉村操氏
主演……琴絲路…大岡怪童 山吹德二郎…佐田鳥彥
次週…空中레-뉴時代…모론코의血煙
豫告…夢秋…恐怖의翼
麻浦桃花洞 電話 三一三 桃花劇場

卅八日より四日まで 晝夜三回上映
『オフイス』でも『喫茶店カフエー』又『電車の中』でも、『街』でも大凡人の集まる處『麗人社交場』の話題で持ちきりです。この映畫を見逃しては一九三五年の映畫は語れません！
上映順
松竹發聲ニユース 眼と耳の新聞
コロンビア映畫 下加茂サウンド版 無軌道親爺水道屋の卷
冬島泰三監督 和田平助捕物帖 幽靈の置手紙 小笠原章二郎
蒲田特作オールトーキー 原作野田高梧、監督野村浩將 『都新愛觀』連載
麗人社交場
岡田嘉子、川崎弘子、坂本武 上原謙
紅ばらの如き姉と白百合の如き生活を廻つて皮肉なの愛纏れ。一九三五年のプロフイル、華やかな都會の出黃昏れ時。
暖房裝置で寒さも感ぜず映畫を觀賞出來ます
本町 浪花館